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8. **7** Vol. 199

부록 부산문화회관 7월 공연캘린더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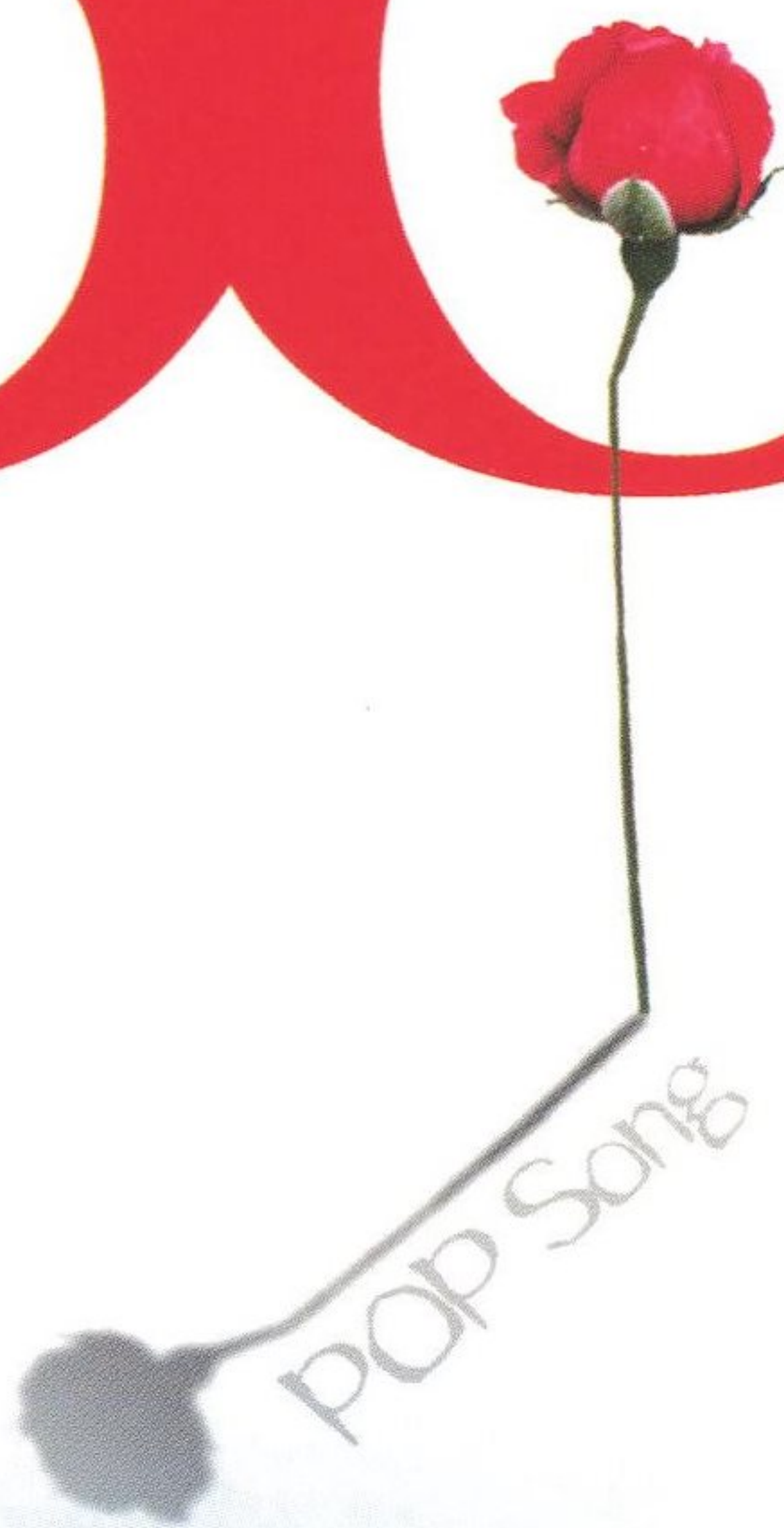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팝음악 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POP** 합창



해설 **임진모**  
(팝 음악평론가)  
MBS-FM 조영남·최유라의리디오시대 '디카팝송' 진행자



**2008. 7. 18 (금) 11:0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입장권 균일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할인)

추천 **부산광역시**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607-6126 [www.bschorus.or.kr](http://www.bschorus.or.kr)  
인터넷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 티켓링크 - [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및  
예술에의 초대 200호 발행 기념 기획공연

# 예술에의 초대 200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아름다운 詩 아름다운 音樂



시인 김상훈



시인 강은교



테너 박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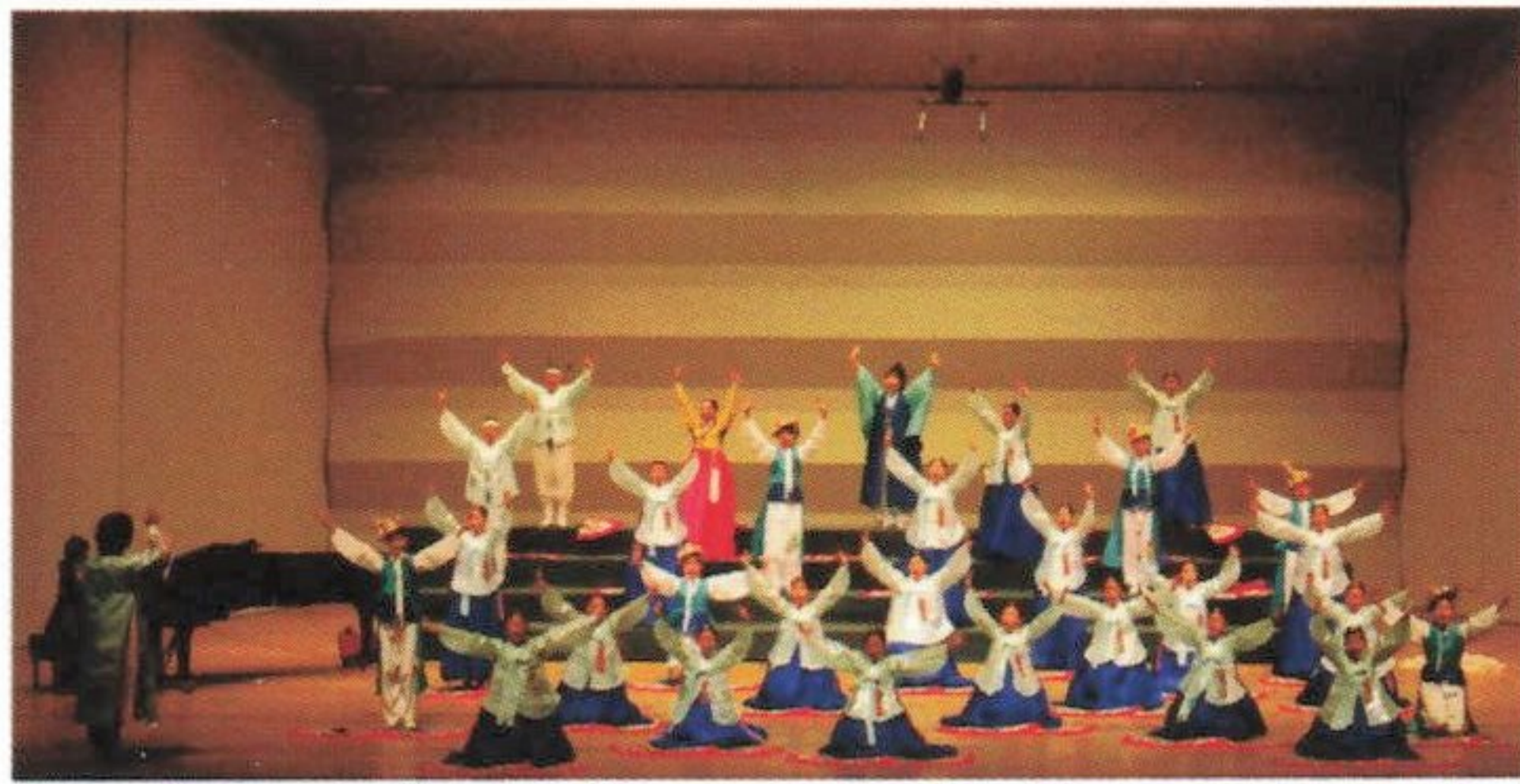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퓨전국악그룹  
희나래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필 앙상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전상철)

2008. 7. 15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권 초대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주최 부산광역시 후원 부산환경공단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1인 2명 무료입장
- 음반· 도서 기증자 무료 입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 큰대식은 내친구

2008. **8.19** [화] 오전 11시 /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나레이션 이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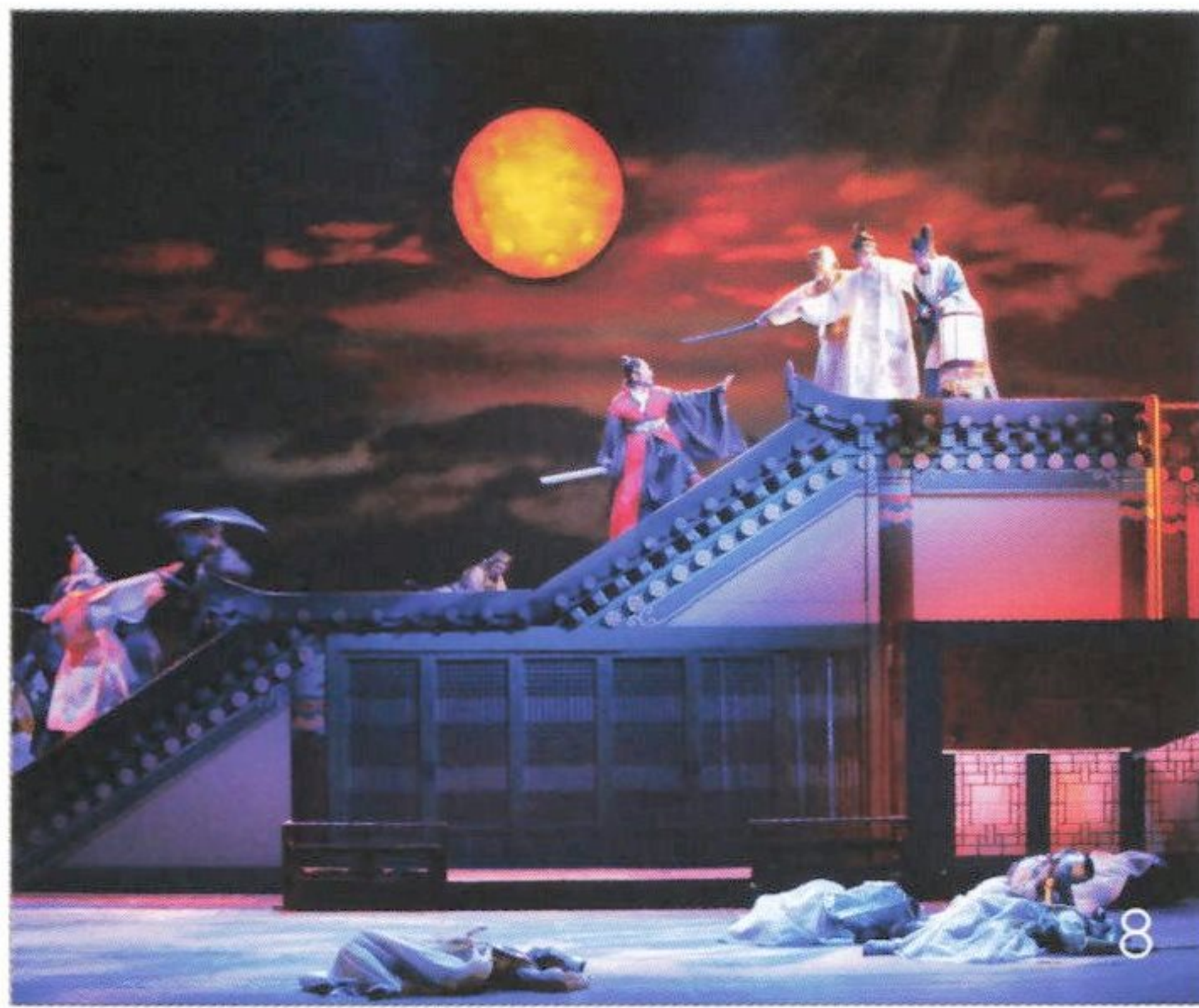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ulture.busa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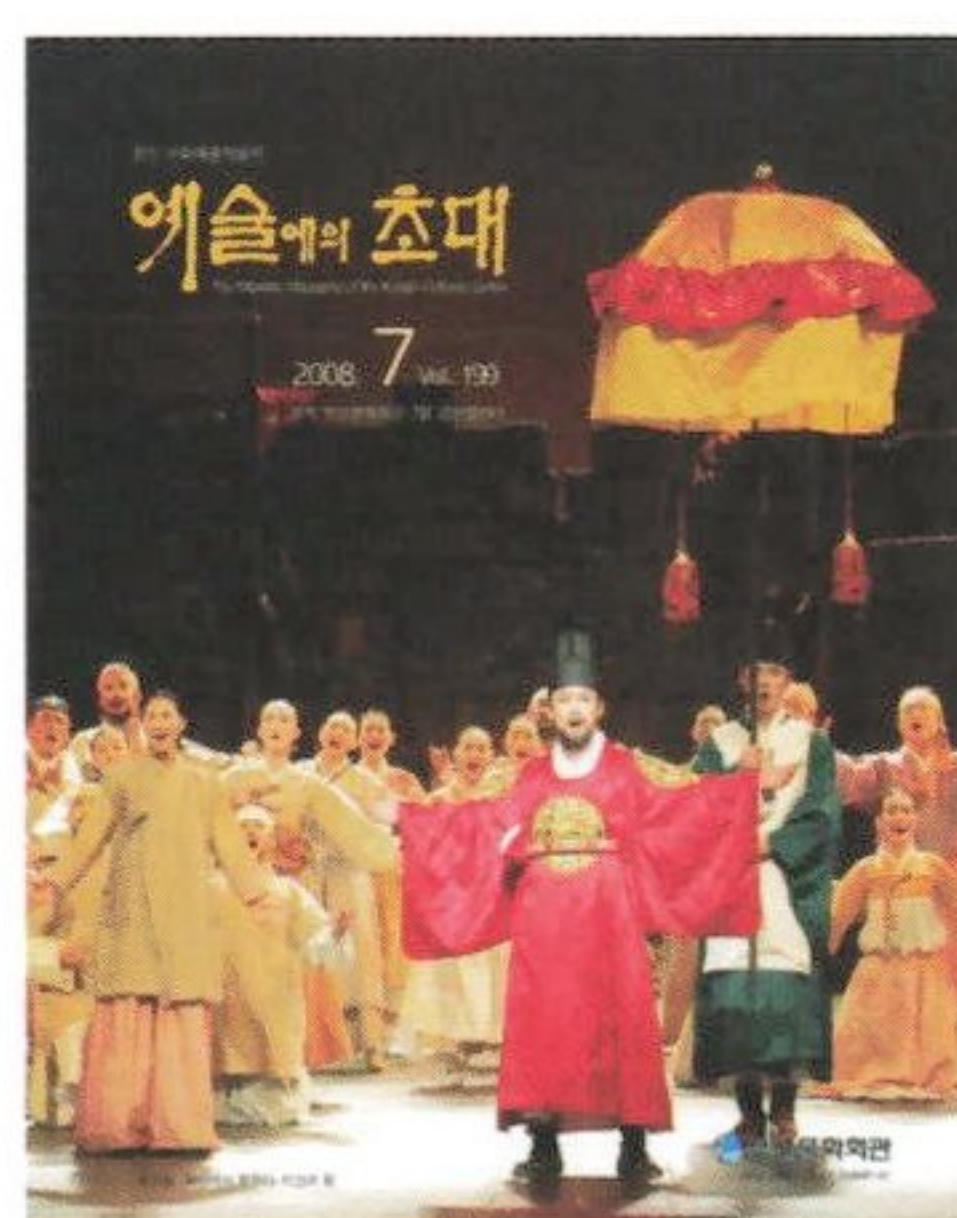
입장권 균일 10,000원  
※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20% 할인  
(단,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예매처 티켓링크 부산은행 전지점





커버스토리	08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프리뷰	11	
반갑습니다	14	개혁을 꿈꾸는 영원한 정조대왕 뮤지컬 배우 민영기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16	장일남과 비목 _ 김상훈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18	일본 히로시마 _ 손수진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22	북대항 판화 _ 채경혜
그 곳에 가면	24	부산독립문화의 메카를 꿈꾸는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우리는 문화 가족	26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27	'El Condor Pasa' 와 '환상의 플로네이즈' _ 황윤기
프로그램 가이드	28	
쉽게 듣는 클래식	38	고음악을 연주하는 기수들 5 _ 광근수
새로나온 책	39	
부산문화회관소식	4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42	
100자 토크	46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47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 (대연 4동 848-4)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8년 6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 표지설명

한국 뮤지컬 대상 연출상, 음악상, 더 뮤지컬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화제의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이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획공연으로 7월 11일~7월 13일 첫 부산공연을 갖는다.

# July 2008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Monday	Tuesday
		1  중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교류음악회 '프로코피오프 필하모니 부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한국국제예술교류회(010-9798-9434)
6  대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리사이틀 19:00 3만원 · 2만원 · 1만원/공연기획 예성(582-2026)	7  대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원로교향악단 창단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 예은예술기획(632-6904), 박종관(011-860-7312)	8  중   김혜린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김혜린(010-6717-9932)
13  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16:00 10만원 · 8만원 · 5만원 · 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가마골 소극장(245-0042)	14  중   26th 한낮의 U:콘서트 '클래식 프로포즈Ⅲ 다이내믹' 11:00 균일 1만 5천원 국제신문(500-5222), 예술기획(0505-700-9798)	15 대   쇼스타코비치와 함께하는 뉴프라이모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뉴프라이모케스트라(816-1104, 816-9104)
20  예술에의 초대 200호 기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작은 음악회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음악' 19:30 초대/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1	22
27	28	29

### 전시실

■ 제 14회 부산서예대전-대, 중전시실  
7월 25일(금)~ 7월30일(수)  
한국서예협회 부산지회  
(331-0556, 011-556-2947)  
※ 시상식 7월 26일(토) 국제회의실 오후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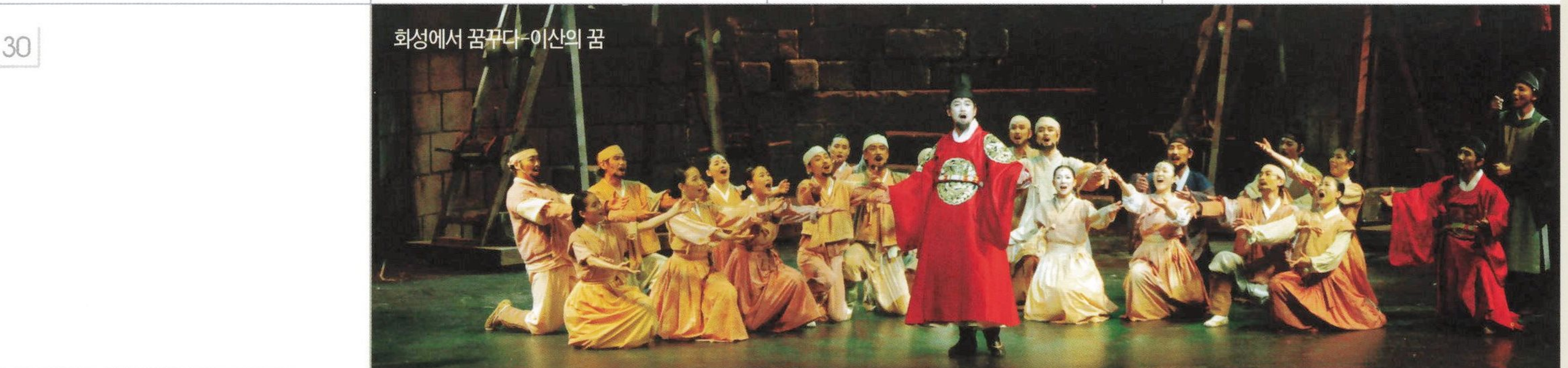
### 국제회의장

■ 부산시립극단 공개오디션  
7월 7일(월)  
부산문화회관(607-6041)

■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무용교실  
7월 28일(월)~8월 1일(금)  
부산문화회관(607-6047)

▶ 7월 19일 ~8월 15일 대극장 무대공사, 7월 20일 ~8월 19일 중극장 무대공사, 7월 1일 ~7월 31일 소극장 무대공사 관계로 7월 토요일상설무대는 쉽니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3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7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4 대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MBC(760-1125) 중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MBC(760-1125)	5 대   부산시-시카고시 자매도시 1주년 기념 미국이 자랑하는 시카고 칠드런스 콰이어 첫 내한공연 17:00 초대/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중   앙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9	10 중   2008 제 17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11 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19:30 10만원 · 8만원 · 5만원 · 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가마골 소극장(245-0042) 중   2008 제 17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12 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15:00, 19:30 10만원 · 8만원 · 5만원 · 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가마골 소극장(245-0042)
16 대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회 19:30 초대/MBC(760-1125)	17 야외공연장   부산시립무용단 2008 여름마당출판 '드라쿨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6118) *우천시 중극장	18 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팝음악 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팝합창'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야외공연장   부산시립무용단 2008 여름마당출판 '드라쿨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6118) *우천시 중극장	19 중   제 4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13:00 (수상팀 시상식 및 수상팀 공연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716)
23	24	25	26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개혁군주 정조 이산, 그의 미완의 꿈

# 명품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 — 이산의 꿈

2008년 7월 11일(금) ~ 13일(일)

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7:30 | 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대한민국 뮤지컬의 신화를 열다!

라이센스 뮤지컬의 흥수 속에서 한국 창작뮤지컬의 역사를 새롭게 쓴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역사적인 부산무대가 7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과 국제신문 창간 61주년을 기념해 펼쳐지는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은 2006년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제작한 대형 역사 뮤지컬로 뮤지컬 '명성황후'를 잇는 명품 뮤지컬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이산'과 함께 부각되기 시작한 개혁군주 정조의 미완의 꿈을 아름다운 음악과 혼신의 연기로 풀어낸 이 작품은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이자 연출가인 이운택과 작곡가 강상구 콤비가 만들어낸 수작이다.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은 초연 첫 해인 2006년 10월에 열린 제 12회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총 6개 부문(최우수작품상, 연출상, 각본상, 음악상, 남녀 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어 연출상과 음악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했고, 2007년 제 1회 더 뮤지컬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한국뮤지컬대상의 연출상과 음악상 수상은 12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지방작품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다.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은 지난해 예술의전당과 경희궁 야외무대, 밀양여름연극축제 영남루 무대 등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도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뮤지컬 넘버와 배우들의 열정적이고 뛰어난 연기력이다. 이번 부산공연에서도 개혁을 꿈꾸는 정조로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민영기가 전회 연속 출연한다. 민영기는 지난 3년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온몸으로 부르는 뮤지컬 넘버들로 호소력 강한 정조의 모습을 보여왔다.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으로 스타덤에 오른 민영기는 한 나라의 왕이자, 한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 이산, 그리고 죽은 아버지 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남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아들 정조대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 민정조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 더욱 업그레이드 된 음악과 안무, 180분간의 흥미 진진한 무대

공연 3년을 맞아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은 기존 작품에서 무대와 음악을 대폭 보완하였고 안무가 박일규가 동참하여 우리 전통 춤사위와 몸짓들을 화려하게 펼쳐 보인다. 특히 시대상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하여 의상 및 소품 등을 보완하였다. 예전과 비교해 기품 있고 단아한 볼거리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한국 최고의 뮤지컬에 걸 맞는 공연을 선사한다.

또 거중기를 이용한 화성 축조과정과 화성행궁 완공 후 열린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봉수당 진찬례'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선시대 문화를 무대예술로도 만날 수 있다. '봉수당 진찬례'는 그 자체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조선시대 궁중제례의 미학을 확인할 수 있다.

극본, 연출을 맡은 이운택은 연극 오구, 어머니, 바보각시, 문제적 인간 연산, 햄릿, 뮤지컬 고래사냥, 태풍, 눈물의 여왕,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등을 연출한 최고의 연출가이다. 이운택은 그동안 서울연극제 대상, 연출상, 동아 연극상 대상, 희곡상, 연출상, 백상예술대상 연출상, 대산문학상 희곡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음악감독 강상구는 KBS 대학국악제 우수 작곡상, 동아음악콩쿠르 작곡부문 2위 입상과 오래된 미래음악 월드뮤직콩쿠르 대상을 수상했다.

정조역을 맡은 민영기는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성악도이다. 1998년 오페라 돈쥬반니 '마제또'역에 출연한 그는 1999년 뮤지컬 하이라이트 콘서트 출연을 계기로 뮤지컬에 입문, 2000년 아보스, 락햄릿, 오즈의 마법사 '마법사', '사자'역, 2001년 아이러브 뮤지컬 빅 쇼에 출연했고 2001년 서울예술단에 입단하면서 태풍, 대박, 고려의 아침, 바람의 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열연했다. 민영기는 2003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제9회 뮤지컬대상 남우신인상과 2006년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으로 2007년 제 1회 더뮤지컬 어워즈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3년간 개혁군주 정조로 살아온 그는 이번 부산 무대에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이산의

카리스마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작품에는 민영기 외에도 눈에 띄는 출연진들이 대거 보강되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성악과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 박소연이 새로운 장덕이로 발탁되어 초연을 빛낸 조정은 이후 연기력과 가창력을 갖춘 새로운 프리마돈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영조 곽은태, 혜경궁홍씨 정유희, 정순왕후 이지은, 이선생 장현덕 등 중량감 있는 전문뮤지컬 배우들과 심한지 이광용, 홍인한 표정범 등 성악을 전공한 전문 인력들이 보강되었으며, 체계적인 뮤지컬 훈련을 받은 젊은 실학자들(임영진, 장정식, 염순식, 허준석, 황혜림 등)은 역대 최고의 앙상블을 보여주면서 명실상부한 명품 뮤지컬의 고품격을 유감없이 발휘 할 것이다.

## Review

올해 본 뮤지컬 중 최고의 공연을 찾으라 한다면 주저없이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를 선택할 것이다. \_worldcio 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귀와 가슴에서 메아리친다. \_happyrecipe 님

공연시간 내내 극에 푹 빠져 행복한 꿈을 꾸었던 날이었다. \_ovemusical 님

'아름다운 것이 힘이다' 라는 정조임금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_윤정희 님

대사 하나하나가 주는 역사적 사실에 감동하고, 못다 이룬 정조의 꿈을 극에서 볼 수 있어 또 한번 감동하고... 우리 창작뮤지컬 무대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이 작품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_peanuthead 님

다시 만나려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하지만 어쩌랴, 이제 또 다른 우리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뮤지컬이 나왔다는 것에 이미 만족할 수 있고 그 정도의 기다림은 설레임이 아니겠는가. \_정성훈 님



민영기-정조 역



박소연-장덕이 역



장현덕-이선생 역



정유희-혜경궁홍씨 역



이지은-정순왕후 역



이광용-심한지 역



여승호-유득공 역



임영진-홍국영 역



황혜림-화완옹주



염순식-정약용 역

**입 장 료**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 A석 50,000원 · B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25-8130, 607-6070), 국제신문(500-5222)  
**티켓예약** 가마골소극장(245-0042)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제 7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 7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매년 마련하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2008년 무대가 7월 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동신 수석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음악회는 자체 오디션을 통과한 7명의 연주자들이 우수한 기교를 바탕으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협주곡을 들려준다.

첫 무대는 플루트주자 이지현과 오보에주자 박소담이 치마로사 ‘2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사장조’ 중 1악장으로 연다. 부산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현은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고등부 1위와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전체 최우수상(2006)을 수상한 바 있다. 함께 연주하는 박소담은 한국경남음악협회 콩쿠르 관악부 오보에 1위(2006)를 차지한 유망주로 현재 경성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제5번 가장조 작품 219 ‘터키’ 1악장을 들려줄 전지원은 음악춘추 여름음악캠프 및 페스티벌을 수료(2002)하고 마산음악협회 콩쿠르 우수(2004), 동아스트링챔버 오케스트라 ‘실내악의 밤’ (2008) 무대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하이든 첼로 협주곡 제2번 라장조 작품 101 중 1악장을 연주할 정혜주는 서울·부산연합 영필하모니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2000~2007)하고 현재 Ko-Asia 청소년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랄로 ‘스페인 교향곡 라단조 작품 21’ 중 제 1악장을 들려주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은 제2회 전국 학생 음악콩쿠르 우수상(2000)을 수상하고 프랑스 꾸쉬빌 뮤직알프 여름 음악캠프(2007)를 수료했다. 모리크 ‘오보에 소협주곡 사단조’를 들려줄 오보에주자 박선영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콩쿠르 관악부문 최우수(2004),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입상(2004)하고 2005년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에 수석입학,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이다.

마지막 무대는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으로 장식한다.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1위(2007)한 연주자 탁서연은 그동안 부산신포니에타, 부산교향악단과의 협연(2005), Quartet QueenZ 앙상블(2007~2008) 등의 무대로 청중들과 만나왔다.



이지현·박소담



전지원



정혜주



김혜진



박선영



탁서연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9)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획공연  
부산시립무용단 2008 여름마당춤판

#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

- 7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8:00
-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



- 안무·구성 : 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훈련 지도 : 이윤희(훈련지도자)
- 각 색 대 본 : 하현관(공연예술팀 '사람(Human Projector)' 대표)
- 연 출 : 오정국(극단 시나위 상임연출가)
- 출 연 : 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

한국의 전통적인 동화, 설화를 해학과 신명, 감동이 살아있는 무대로 마련하는 부산시립무용단 2008년 여름마당춤판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이 7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03 춘향, '04 흥부 vs 놀부, '05 이쁜이 시집가는 날, '06 男 콩쥐 vs 팔쥐, '07 선녀와 나무꾼'에 이어 부산시립무용단이 2008년 새롭게 선보이는 여름마당춤판은 전통 설화 '장화홍련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여름밤 더위를 식혀준다.

여름마당춤판의 매력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춤과 노래, 연기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이다. 한여름 밤 시원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2008 여름마당춤판은 장화가 드라큘라가 된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새로운 재미를 더해준다.

공연예술팀 '사람(Human Projector)' 대표 하현관이 각색하고 극단 시나위 상임연출가 오정국이 연출, 수석안무가 홍기태의 안무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프롤로그 태몽-장미와 연꽃을 시작으로 단란하고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배좌수와 부인 장씨, 장화, 홍련의 어린시절을 그린 1장 재롱잔치, 2장 저승사자, 한여름 바닷가로 배좌수와 두 딸의 물놀이를 묘사한 3장 물놀이, 허씨 여인과 배좌수의 만남을 코믹하게 그린 4장 천둥번개, 허씨와 아들 장쇠의 구박을 받는 장화와 홍련의 아픔을 그린 5장 비극의 시작 등 전체 13장과 에필로그 '환생'으로 구성되었다.

수석단원 권봉정이 장화, 오수연이 홍련, 이성원이 아버지, 강미향이 어머니, 김경미가 첩 허씨, 박상용이 허씨의 아들 장쇠로 열연한다.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유니세프를 후원하기 위해 모금활동과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담은 유니세프 사진전이 함께 열린다.

입장료 무료(우천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됩니다. ※ 선착순 입장)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팝음악 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 이야기가 있는 팝합창

■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이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을 준비, 7월 18일 오전 11:00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세계적인 팝 음악을 들으며 추억 여행을 떠나는 이번 무대는 팝 칼럼니스트 임진모의 맛깔 나는 해설과 부산시립합창단의 합창이 있는 여유롭고 편안한 웰빙 음악회로 부산시립합창단이 7080 가요 합창음악회에 이어 마련하는 또 다른 가요합창시리즈이다.

지난해에 이어 부산을 찾는 팝 칼럼니스트 임진모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향신문사 출판국 기자, 내외경제신문사 기자를 지내고 팝음악에 매력을 느껴 음반프로덕션 동인기획 실장으로 음악인생을 시작했다. 음악평론가, 팝 칼럼니

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방송과 집필 활동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MBC 표준 FM '임진모의 뮤직스페셜'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MBC 표준 FM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MBC FM '배철수 음악캠프', KBS 라디오 '왕영은 이상우입니다'에 고정출연하고 있고 '월간조선', '복새통', '오이스트리트', '영화마을'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볼레로 색소폰 앙상블과 드러머 김진훈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대구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한 김명찬, KBS 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한 조수연, 미8군 빅밴드, KBS 관현악단, 소방악대 수석주자를 역임한 고영진, 육군군악대를 20년간 재직하고 애플 빅밴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상경이 활동하고 있는 볼레로 색소폰 4중주는 대구를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펼쳐온 색소폰앙상블이다.

드러머 김진훈은 동의대학교 음악학부 실용음악과에서 드럼을 전공하고 그동안 2002년~2003년 부산재즈페스티벌, 2004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연주, KBS 'TV 문화 속으로'에 출연한 바 있고 현재 JH Drum/Percussion School 원장, DUK Project 밴드로 활동하고 있다. 그외 이승규 밴드 SPS로 활동하면서 버클리 실용음악원, JH Drum & Bass School에 출강하고 있는 강주현과 국악 퓨전 재즈 밴드 '아름누리', 올웨이즈 밴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모니카 주자 김청현이 객원 연주자로 함께 무대를 열어준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은 Mamma Mia와 Thank You For The Music 등 아바(ABBA) 음악과 함께 하는 합창 하나 무대를 시작으로 영화 '리브스토리' 중 'Where Do I Begin', 영화 '그리스' 중 'Summer Nights' 등이 흐르는 합창 둘, 영화 속의 음악, 여성합창으로 듣는 El Condor Pasa, Sound of Silence 합창 셋 등 개성 넘치는 여섯 빛깔의 무대로 행복을 선사한다.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됩니다.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개혁을 꿈꾸는 영원한 정조대왕

## 뮤지컬배우 민영기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으로 제1회 더 뮤지컬 어워즈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뮤지컬 배우 민영기. 2006년 초연 이후 3년간 정조대왕으로 살아온 민영기는 개혁을 꿈꾸는 군주 정조의 고뇌와 사랑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온몸으로 부르는 뮤지컬 넘버들로 표현, 뮤지컬 매니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와 뮤지컬 '컴퍼니'를 병행하며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그가 초연 이후 처음으로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부산공연을 앞두고 설레고 있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부산공연 이후 오랜만에 부산을 찾게 되는 민영기와 서면으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 '화성에서 꿈꾸다'는 배우 민영기를 위한 작품이라고 할 만큼 온몸으로 정조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캐스팅 되었을 때의 느낌과 공연을 통해 배우로서 변화가 있다면 = 처음 캐스팅 당시 이윤택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곤 "민영기를 위한 작품이다, 내가 너에게 딱 맞는 작품을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대본을 보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했어요. 민영기를 위한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요. 처음 캐스팅 되었을 때는 대사를 사극톤으로 치면서 이상한 어조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윤택 선생님과 김소희 선생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조라는 인물이 탄생한거죠.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바꾸면서 저 또한 조금씩 깊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 캐스팅 당시 이윤택 선생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것이 있다면 = 선생님께선 캐스팅에 신중을 기하시는 편이세요. 특별히 주문한다기 보다는 작품에 맞는 그 사람의 매력을 많이 끌어주십니다. 민영기가 가장 주무기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매력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조도 저의 에너지와 매력을 돋보이게 보여주셨죠.

▶ 정조 역할을 통해 만난 '인간 이산'에 대한 삶과 고뇌에 공감을 하십니까 = 충분히 공감합니다. 만약 내가 산이었다면 아마 궁 밖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눈앞에서 뒤주에 갇혀 돌아가시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악몽에 시달렸을 텐데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많은 대신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야 하니 정말 힘들고 무섭고 외로웠을 겁니다. 정조라는 임금은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 민영기의 '이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 초연 때부터 함께 작업을 하면서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많은 시행착오 중에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적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기도 했죠. 그때 이윤택 선생님께선 "이건 픽션이다. 사실극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맞서셨지요.

그런 역사적인 근거들도 힘들었지만 역시 책을 통해 알아낸 정조라는 인물과 민영기가 표현해 내야 하는 정조, 어떻게 하면 민영기가 정조라는 인물에 녹아들 수 있을까를 고민 했어요. 그런 것들이 3년을 지나면서 많이 다듬어지고 적립이 되었겠지요.

▶ 많은 팬들 중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 기억에 남는 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들이예요. 요즘 들어 가장 고마운 사람을 꼽으라면 민영기닷컴의 운영진을 꼽고 싶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면서 지방공연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운영진들이 전부 지방사람들입니다. 운영자 -고은경(평택), 운영진 -조경아(청주), 박장미(울산) 서울이든 지방이든 해외이든 민영기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저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 성악 전공자로 뮤지컬 배우가 되고자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면 = 성악과 졸업반 당시 유학을 꿈꾸었고 현실로 조금씩 다가가던 중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닦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뮤지컬 '부스코러스'라는 아르바이트가 들어왔는데 무대에서 배우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으면 관객에게 좀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마이크만 잡고 노래를 불러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무대 위에 있던 배우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관객들과 거리낌 없이 바로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고 오페라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배우라는 직업이 아닐까 고민하다 결국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엔 오디션도 많이 보러 다니고 앙상블을 많이 했죠.

▶ 많은 작품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는다면 =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아무래도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민영기라는 배우가 코러스에서 메인으로 처음 선 무대가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2003년에 이 작품으로 신인상도 받았던 만큼 정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킬 앤 하이드, 이 작품은 뮤지컬을 시작하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음반도 많이 듣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2004년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와 정말 꿈만 같았어요.

▶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관람 포인트 = 이산,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가 얼마 전 드라마로 종영을 했기에 더욱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조의 삶과 고뇌, 임금의 외로움 등등 많은 사건들이 공연으로 보여지는데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은 음악이 참 좋아요. 음악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정조의 삶 전체를 스펙터클 하게 다루는 내용이니만큼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부산과 부산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진다는 우리 시대의 정조 '민영기'. 그와 함께 꾸는 화성의 아름다운 꿈에 기대가 크다.

# 장일남과 비목

張一男 碑木

민립 김 상 훈 | 시인, 민족시가 연구소 이사장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碑木)이여  
먼 고향 초동(草童)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 마디  
이끼되어 맺혔네

궁노루 산 울림 달빛타고  
달빛타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지친  
울어 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天真)스런  
추억은 애달파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애절(哀切)하고 참담(慘憺)한 심정과 함께 떠오르는 '비목'이란 노래이다.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한 어느 용사의 죽음을 기억하려는 표징물 '비목', 그의 육

신은 말이 없으나 그의 영신(靈身)은 먼 고향 초동친구를 잊지 못하고 그 옛날 천진했던 시절을 못내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두 말할 나위없이 6·25 한국전쟁 때 아깝게 희생된 젊은 병사들의 혼령(魂靈)을 달래는 노래라고 하겠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나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만 3년 1개월 2일동안 계속되었다.

유엔 안보리의 긴급결의에 따라 북한을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16개국의 병사들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전,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가까스로 막아주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입은 피해와 희생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다. 한국군 전사자가 30만 1천 8백 66명, 미군 전사자 11만 4천 1백 67명, 기타 유엔군 전사자 9천 8백명 등 총 42만 5천 8백 53명의 고귀한 인명 피해를 보았고, 민간인도 1백 6만 9백 68명이 희생되었으며 월남한 피난민도 2백 77만명, 전재민(戰災民)도 3백 30만명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도 2백 50만명의 인명손실과 1천 5백만명의 전재민을 냈다.

전쟁이란 인간이 극도로 살벌해지고 잔학(殘虐)해지는 악행(惡行)의 총괄(總括)이라고 하겠다.

살육과 약탈과 방화와 강간 등이 마구 자행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비목'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깊은 계곡 양지녘에 비목이라도 세워졌으니 크게 위로 받



은 경우라고 하겠다.

6·25전쟁은 그야말로 일괄적으로 통제된 전선(戰線)과 전장(戰場)이 없었다. 기습남침에 의해 수도 서울이 사흘만에 함락되고 말았고 9월 28일 수도를 회복하기까지 계속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전황(戰況)이었기 때문이다.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 전우가 죽어도 묻어 줄 겨를이 없다. 전우의 시체를 뒤로하고 전진을 하든지 아니면 후퇴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였다. 작사자 한명희의 '비목'은 많은 전쟁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금을 가장 절절하게 울려주고도 남음이 있는 명시라고 하겠다.

작곡자 장일남(張一男)은 황해도 해주에서 6남매 중 외동아들로 태어나 귀염둥이로 자랐다. 이화음대를 나온 순선(順善) 누님과 평양음악학교를 다닌 순실(順實) 누님 틈에 함께 어울려 음악적인 재능을 길렀으나 부모로서는 외아들을 음악가로 만들 심산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해주사범학교로 진학을 했으며 거기에서 원홍용과 일본인교사 야나가와(柳川) 두분께 사사했다.

8·15 해방을 맞아 해주사범학교에서 해주음악학교로 옮겨 한시형에게 화성학과 대위법을 연마했으며 한선생의 중용에 따라 많은 작곡지망생 중에 선발되어 김순남의 지도를 받게 되었고 음악학교도 해주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김순남의 작곡지도는 자기 문하의 재능이 있는 제자에게는 때와 장소가 없는 열성적인 지도였다. 며칠 낮 며칠 밤씩을 붙들어 두고 제자의 재능에 불을 붙여주는 스승이었다. 그래서 김순남의 수제자 네 사람은 스승의 함(銜)자인 남(男)자를 한자씩 따서 각기 개명(改名)까지 하여 그의 가르침에 보답했다. 장일남의 본명은 재봉이었다.

6·25가 일어났던 해에 그는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1·4 후퇴 때 단신 월남했으나 학교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힘들었고 생활의 위협과 외톨이의 고독속에서 나날을 보내었다. 그 시절 그는 마치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성(城)'의 주인공 K처럼 온갖 부조리 속에 존재하는 한낱 미약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 노래가락은 단장(斷腸)의 슬픔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청명한 날이면 연평도에서 아득히 보이는 고향 해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달래었다고 한다.

김민부 작시의 '기다리는 마음'은 바로 이때에 착상된 것이라고 하며 '비목'도 같은 시기에 착상된 것이나 작곡은 그 뒤 1962~3년도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민부의 '기다리는 마음'은 원래 바리톤 김원경이 불렀는데 그 후 장일남의 친구였던 바리톤 진용섭이 애절한 감정으로 구성지게 불러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다고 한다. 그의 많은 가곡은 '비목'이나 '기다리는 마음' 등에 가리워져 크게 빛을 못 보았으나 소박한 곡으로는 '꿈에 피었던 꽃'이 있고 서정가곡으로는 '달무리'와 '추억' 등이 있다. 또한 예술가곡으로 다듬어진 노래로는 '접동새' '가는 길'이 있다.

그의 가곡의 흐름은 허무(虛無)와 애상(哀傷)이 전편에 깔려 있어 대부분 짙은 향수(鄉愁)에 담긴 노래들이다.

그는 가곡에 앞서 많은 오페라곡을 작곡 했었는데 그것은 그의 가락이 오페라에 알맞고 서정의 응축(凝縮)이 진한데다가 악곡을 구성해 나가는 작곡법의 요령이 능숙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방치(放置)해두지 않아서였다.

오페라에 얽힌 일화의 하나로 1971년 김자경 오페라단 제7회 공연작품으로 '원효대사'가 정해지고 작곡료로 50만원을 파격적으로 선불 했는데도 작곡자 장일남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1년 반이나 작곡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김자경 여사에게 붙들린다. 그는 그 길로 김여사 집에 감금되다시피하여 3개월 만에 '원효대사'를 탈고하고 풀려나온다. 이 오페라작곡에도 대부분은 김민부 시인, 작곡은 본인, 노래는 바리톤 진용섭으로 해 놓고 진용섭의 성역(聲域)에 알맞게 작업을 해 나갔다고 한다.

아름다운 시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따르고, 그 아름다운 노래 뒤에는 아름다운 인간애가 마치 맑은 개울물처럼 돌돌 흐르고 있음을 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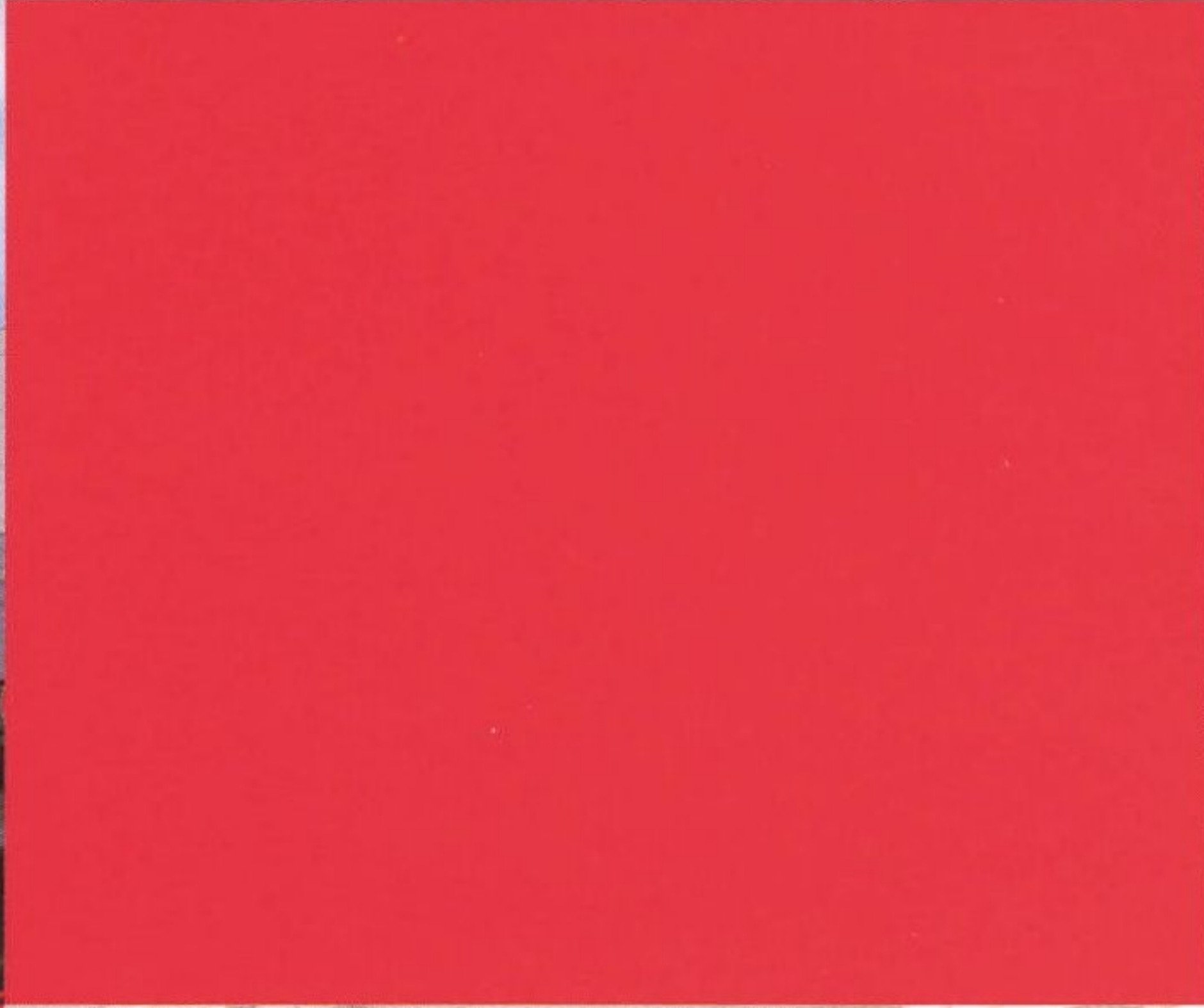


상처를 딛고 일어난 서일본 최대의 도시

# 히로시마

손수진 | 일본통신원

히로시마시는 히로시마현의 현청소재지로서, 후쿠오카와 오사카의 거의 중간에 위치한다. 인구는 115만명으로 일본 전국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서일본 최대의 공업도시이다. 시내 중심부에는 6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 물의 도시라고도 할 정도로 크고 작은 다리가 눈에 띄는데, 무엇보다 히로시마를 소개하는 데는 원폭 피해의 도시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 ① 히로시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리는 아스테르프라자
- ② 옛 히로시마의 은행 건물을 외관 일부를 남기고 현대에 맞게 재건축한 베이커리 안데르센
- ③ 지하상가 샨레오에 있는 Natural kitchen



일본시청 국제교류과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며 일본과 인연을 맺은 필자가 히로시마에 거주하게 된 것은 어느새 6년. 히로시마는 아픔이 많은 도시인 만큼 따스한 기운이 넘치는 도시인 것 같다.

1945년 8월 6일, 인류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시의 중심부에 투하되었고, 당시 히로시마시 인구 34만명 중 14만 여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히로시마에서는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49년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 건설법이 시행되었고, 폭심지가 가까이 있어서 큰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현 산업 장려관이었던 돛형 건물을 원폭돔으로서 보존하고 그 주변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으로 정비하였다. 원내에는 원폭돔(세계유산으로 등록) 외에도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평화기념자료관, 국립 히로시마 원폭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 원폭사망자 위령비 등 많은 위령비가 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피폭당시 히로시마에 거주했다는 한반도 출신자 5만 여명 중 3만 여명이 사망했는데 한국인 원폭 희생자위령비도 찾아볼 수 있다.

히로시마에 와서 '한국인 독일치료위원회'의 의료회 통역을 한적이 있다. '한국인 독일치료위원회'는 피폭 후 한국에 귀국하여 피폭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원폭피해 한국인들을 초청하여 치료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이다. 올해로 60년이 된, 한국인 기독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인 재외동포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는 일본인들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히로시마는 원폭으로 인한 어두운 과거로 무거운 인상이 있지만, 그만큼 평화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생활하기 편리하여 살면 살수록 정이 드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학은 국립 히로시마대학과 히로시마 의과대학, 2008년도에 창립 60주년을 맞은 엘리자베드 음악대학, 그 외에도 단기대학 등이 주로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유치원생부터 방과 후 학원을 세 개 이상 다니는 것이 드물지 않아 높은 학구열을 실감한다. 시내에 이 같은 대학은 물론, 중심부에 원폭돔, 평화공원, 히로시마성, 미술관 등 구경거리와 백화점, 상점가, 100

엔 샵 등이 모두 모여 있어 관광과 쇼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다.

걸어서도 둘러볼 수 있지만, 거의 평지여서 필자는 자전거를 애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 노상방치 단속이 엄해져서 100엔으로 유료시설에 세워두는 것이 안전한데 6월부터는 어린이들도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 볼거리로는 히로시마성(廣島城), 숙케이엔(名勝 縮景園)을 꼽을 수 있다. 숙케이엔은 1589년에 축조되어 원폭으로 전소되었으나, 일부가 복원되어 역사자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숙케이엔(名勝 縮景園)은 히로시마의 번주가 별장 정원으로 축조하였는데, 중국 항주의 서호(西湖)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연못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섬들과 다리를 배치하는 기발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녹음이 풍부한 명승정원으로, 벚꽃과 철쭉의 명소로도 유명하다.

히로시마에는 문화 시설도 많다.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숙케이엔과 인접한 도시형미술관으로, 서 일본 최대의 규모이다. 숙케이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로비가 있고 미술관 안뜰에는 피카소의 아들로부터 기증받은 마로니에 나무가 있다.

어린이문화과학관과 교통과학관이 있는데 어린이문화과학관은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만들고, 확인하는' 체험의 장이다. 직경 20m의 돔에 펼쳐지는 천문 쇼를 비롯한 사이언스 쇼 등을 즐길 수 있다. 교통과학관은 약 2,000여점의 모형으로 만든 동서고금의 비행기, 배, 철도, 자전거가 있고, 거대한 파노라마로 근 미래도시의 교통체험, 컴퓨터 검색, 모형운전 도전, 특수영상 감상 등 볼거리가 많이 있으며, 옥외광장에서는 특이한 디자인의 자전거도 탈 수 있다.

이들 볼거리는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노면전차와 아스트람라인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아스트람라인은 전기가 동력인데 지상과 지하구간을 달리는 전차로 일본어 아시타(내일)와 영어 트림(전차)을 조합하고 노선을 뜻하는 '라인'을 합성한 말이다.

도로에 노면전차가 달리고 있어 옛스러움을 느끼게 하는데 히로시마시에 처음으로 시내 노면전차가 달리기 시작한 것은 1912년이다. 히로시마는 지금도 '움직이는 전차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신구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일본은 축제가 많이 있는데 히로시마에서도 특히 여름을 전후로 축제가 많이 열리므로 볼거리가 풍성하다. 히로시마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플라워 페스티벌, 토오카상, 요트레이스 히로시

마 요트 피스컵, 히로시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이 있다.

플라워페스티벌은 꽃과 평화, 국제화를 컨셉으로 매년 5월 3일~5일 연휴기간에 열리는 히로시마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토 오카상은 매년 6월 첫째 주 금요일~일요일에 열리며 별명 유카타 축제라고 불리어 유카타 모습으로 구경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히로시마에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풍물로서 시내 중심거리에 1,000점의 노점상이 줄을 잇는데, 45만 명이 모인다고 한다. 그리고 여름바다를 아름답게 수놓는 요트레이스 히로시마 요트 피스컵 2008은 7월 26일, 27일 개최된다.

또한 올해는 격년으로 열리는 제 12회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8월 7일부터 11일 까지 시내 아스테르프라자에서 열린다. 이 페스티벌은 칸느영화제의 애니메이션 부문이 독립하여, 1960년에 프랑스 아누시에서 첫 대회가 개최되었고, 동시에 애니메이션 필름협회(ASIFA)도 설립되었는데 ASIFA가 공인하는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일본 히로시마, 프랑스 아누시, 캐나다 오타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등 4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히로시마에서는 1984년에 처음 열렸으며, 주로 아시아와 미국 및 남미작가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상업성이 배제된 아트 애니메이션과 단편 애니메이션의 경쟁 부문에 행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경쟁부문 애니메이션 영화상영과 출판물 및 캐릭터 상품의 판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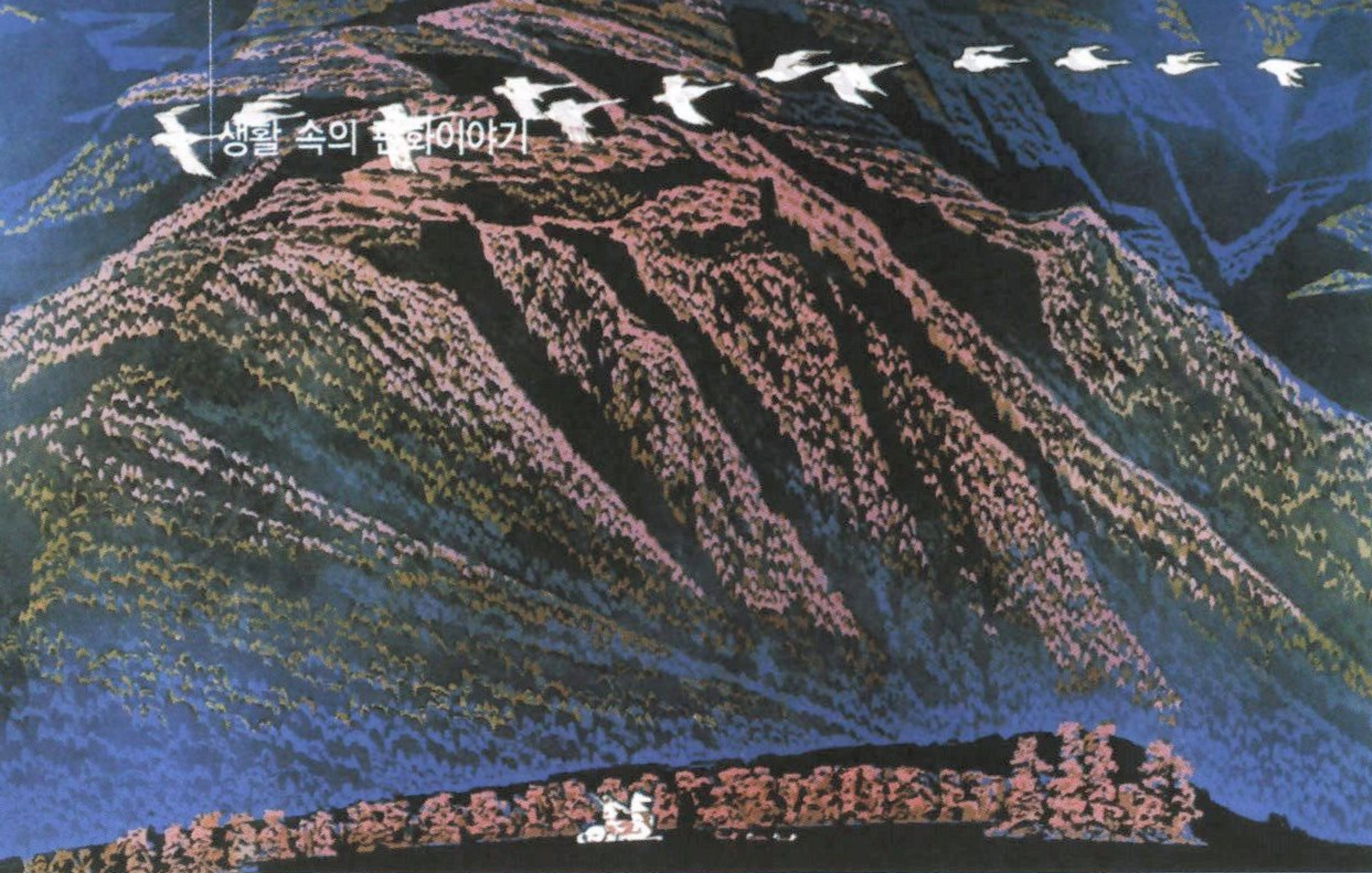
전시, 애니메이션 관련 심포지움과 워크샵 등으로 행사가 펼쳐지고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 컬렉션, 일본 특집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상영 등이 있다. 페스티벌은 유료이며, 1개 프로그램권 1,200엔(약 12,000원), 1일권 3,000엔(약 30,000원)이다. 히로시마에 살면서도 그동안 참여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아이들과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여해보고 싶다.

그 외에 히로시마의 명물로 히로시마풍 오코노미야키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오코노미마을, 오코노미 공화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코노미야키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과 빌딩이 있고 거리에서는 우동가게보다 오코노미야키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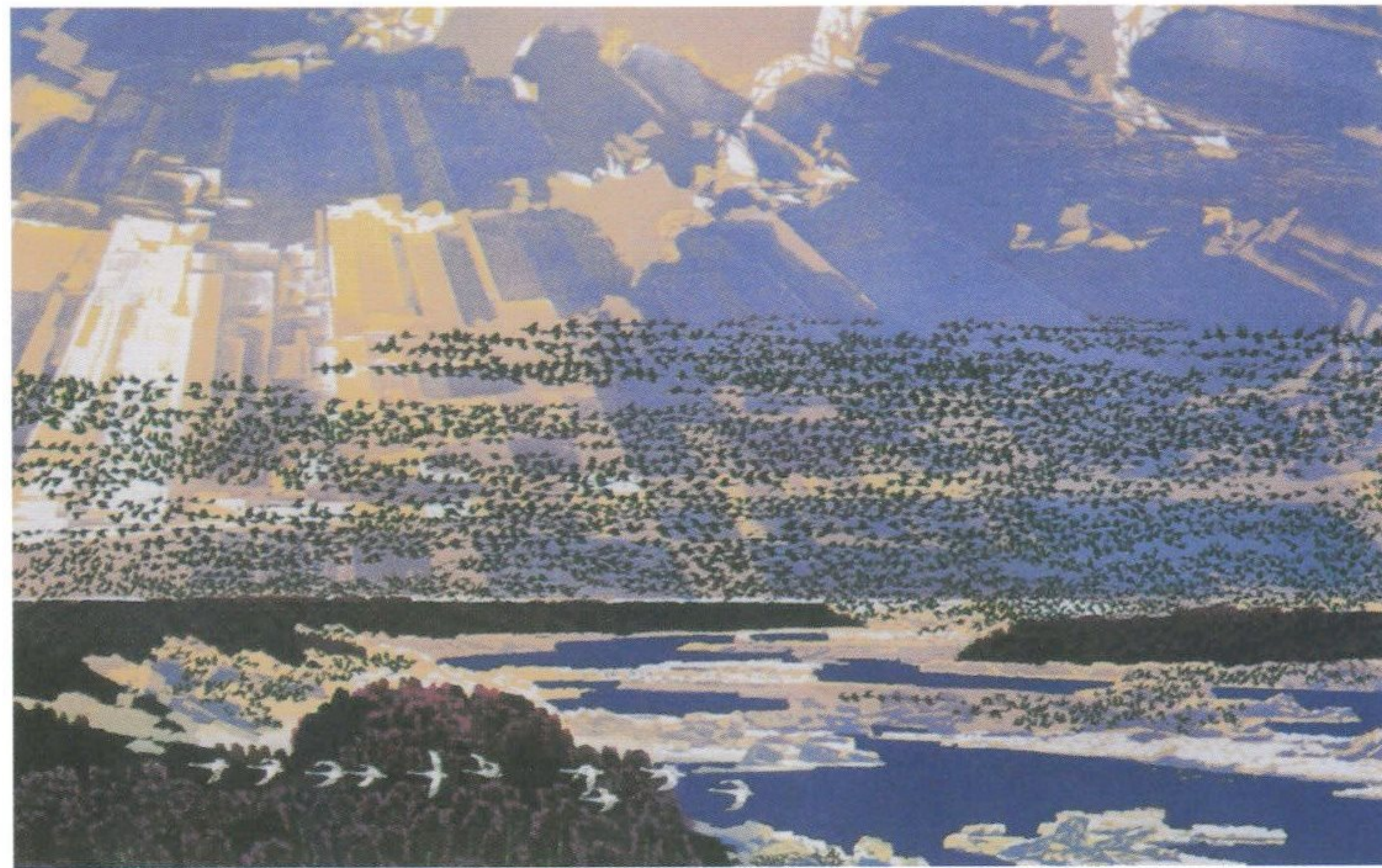
시내를 다니다보면, 가게 간판에 상도, 대장금, 서울, 할매집 등 낮이 익은 단어들 보인다. 히로시마시가 대구와 교류를 맺고 있고 서울까지 직항 비행기가 있어서인지 주변에는 한류 붐인 지인들이 여럿 있다. 얘기를 들어보자면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에 서너번 자유여행을 다녀왔는데 한국사람의 친절함에 감동한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다이어트 DVD를 국제우편으로 구입하고 김치, 나물, 찌개 등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15킬로그램의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한국 음식에 감동한 지인이 있다. 아이들 유치원 친구 엄마들 중에는 4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며 한국말을 배웠다며 떡볶이와 지짐, 찌개 요리를 가르쳐 달라 하기도 하고, 아이가 김치를 무척 좋아해서 매일 아침에 먹고 있는데 도시락에도 김치를 넣어달라는 말을 한다는 얘기 등을 들으면 한국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원폭돔





첸유핑(陈玉平) '高高的兴安岭'



첸유핑(陈玉平) '春颂'

# 북대황 판화

## 낮에는 개간, 밤새우며 목판화를 새기다

채 경 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최근에 보여지는 중국의 문화대국정책은 상당히 흥미롭다. 북경을 방문해서 중앙미술학원의 판화과 교수나 몇몇 전업 작가들에게서 전해지는 작가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화적 환경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경의 798지역이나 다산즈 등 공장 지대의 미술거리나 선전시의 판화특화사업을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그중 광둥성 선전(深川, Shenzhen)은 2007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 불을 달성한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다. 문화산업발전을 4대사업으로 하는 선전시가 관란지구에 5개년 계획으로 총 3,000억의 재원을 들여 국제판화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다. 그러나 실제 방문해보니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에, 그리고 그 추진력에 놀랐다. 우선 '관란판화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세계미술시장과 작가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어 모은 다음,

오리지널판화 제작, 전시, 교류, 연구, 후진양성 그리고 시장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판화와 산업이 함께 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6개월 뒤 안휘성을 방문했을 때 이미 관란에서 제작된 안휘성 출신 판화작가의 안휘성 유적 판화가 전시되고 도록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안휘성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전역의 유적지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 놀라운 역동성은 바로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목판화는 당(唐)나라 때에 목판인쇄의 발전과 더불어 불화와 지도 또는 삽화 등에 이용되었다. 우리의 전래 목판화는 책표지로 쓴 능화(菱花)판화, 편지 겹봉투에 찍은 시전지(詩箋紙) 판화, 궁중 및 사찰판화, 부적판화 등 종교 및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어 중국 고 판화와 함께 동양 인쇄문화권의 원류



리우춘지에(刘春丽) '鹿苑'



장젠귀(张祯麒) '雪浴鹿鸣'



유강(吴刚) '风雪行'

를 형성하였으나 근세에 들어서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중국미술은 전통적으로 정신의 충실과 함께 사실적인 표현이 본질을 이루는데, 목판화의 경우 중국현대사의 이념적 분위기 속에서 혁명의 메시지를 파급시키는 데에 간편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출현하였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이념을 전하고자 민속공방을 통해 대중적인 연화(年畫)양식을 빌어 대량으로 판화를 제작·유통시켰다.

목판화는 일견 거칠고 표현이 직설적이어서 강한 이미지 전달에 효과적이다. 때문에 찡하게 가슴에 와 닿는 강한 호소력으로 정치·사회적 변혁의 메시지를 사회저변에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중국 현대문학의 시조 루쉰(魯迅)은 독일의 콜비츠에 감동받아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신흥목판화운동을 주도하였는데 판화가 저렴하고 대량제작이 용이한 점에 착안하여 농민을 교화하는 수단으로서 판화를 보급하면서 그 기틀을 다졌다. 이후 중국 판화의 흐름은 학원(대학)과 북대항계열 판화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중국인의 역사와 생활 속으로 판화가 스며들고 미술관 및 매니아들의 소장품이 되었으며 문화특구마다 전문갤러리까지 생겨났다.

북대항(北大荒)이란 과거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 일대의 평원을 통칭한다. 말 그대로 '북쪽의 버려진 황무지'란 뜻이지만 개간사업 이후 지금은 중국의 식량창고가 되어 북대창(北大倉)으로 불린다. 1958년 중국정부는 '변강과 소수민족지구의 사회주의 건설에 청년들을 동원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첫해에 산둥 주변의 청년과 이민 그리고 군인 등 5만 5천명을 북대항 평원으로 보냈는데 이들이 겪은 경험과 시련이 훗날 '북대항판화'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주한 유명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이 이들 이주민들에게 전수되어 1960년 11월, 북경에서 <북대항미술작품전람회>가 개최되면서 북대항판화의 서막을 열게 된다. 이때 전시된 202점의 미술품 중에 판화는 무려 122점이었으며, 이듬해 8월 또 한 차례 <흑룡강 간

구 판화전>이 북경에서 개최되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에 고무된 인민미술출판사는 <북대항판화집>을 출판하였으며, 이때부터 북대항판화가 중국내 미술유파로서 당당히 등장할 수 있었다.

중국미술협회는 이들 젊은 판화가들의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해 자유롭게 여행하며 스케치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차오메이(晁楣) 장전치(張禎麒) 두홍니안(杜鴻年) 장류(張路) 등은 신강(중국 서북쪽)에서 6개월간 오로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으며, 1962년 하얼빈에 정착, 전문적인 창작의 길로 접어들면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된다. 이로써 북대항판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이들 1세대 작가들은 매년 3개월간 북대항개간지에 복귀하여 생활하는 등 판화를 시작하던 시절의 초심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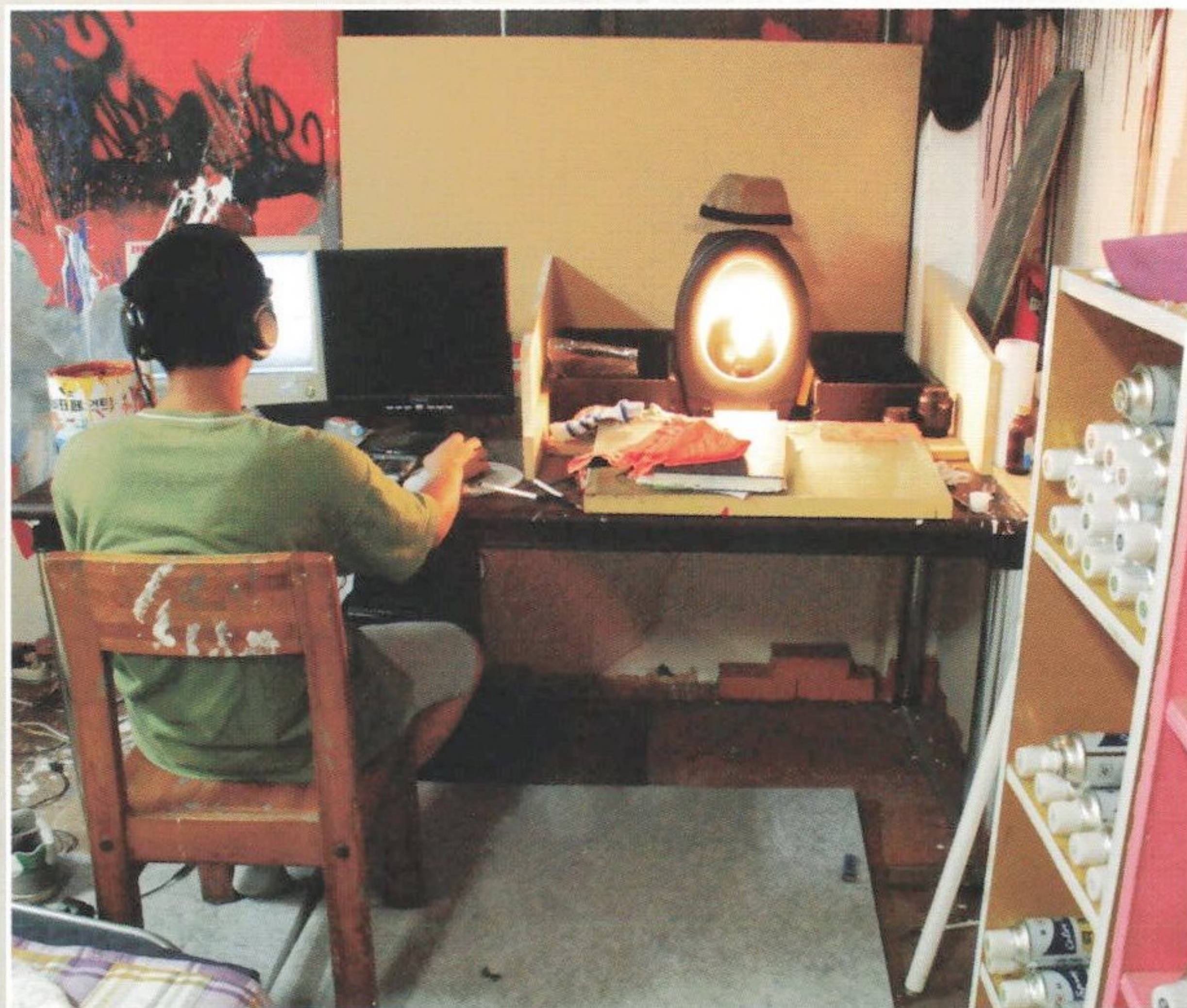
여느 사회주의 예술과 마찬가지로 북대항판화도 때로는 정치적으로 인민들에게 노동을 진작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여 한때 이들 판화가들의 수가 200여명에 이르기도 했으며, 6,70년대 문화 혁명기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개방화시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모색과 함께 진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대중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이들 판화가들은 북방의 광대한 자연 환경을 구도 삼아 개간지의 끈끈한 노동 현장을 목판화로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중국미술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또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해서 원시림과 인간과의 교감을 밀도 있게 서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친근한 느낌의 유인다색판화를 정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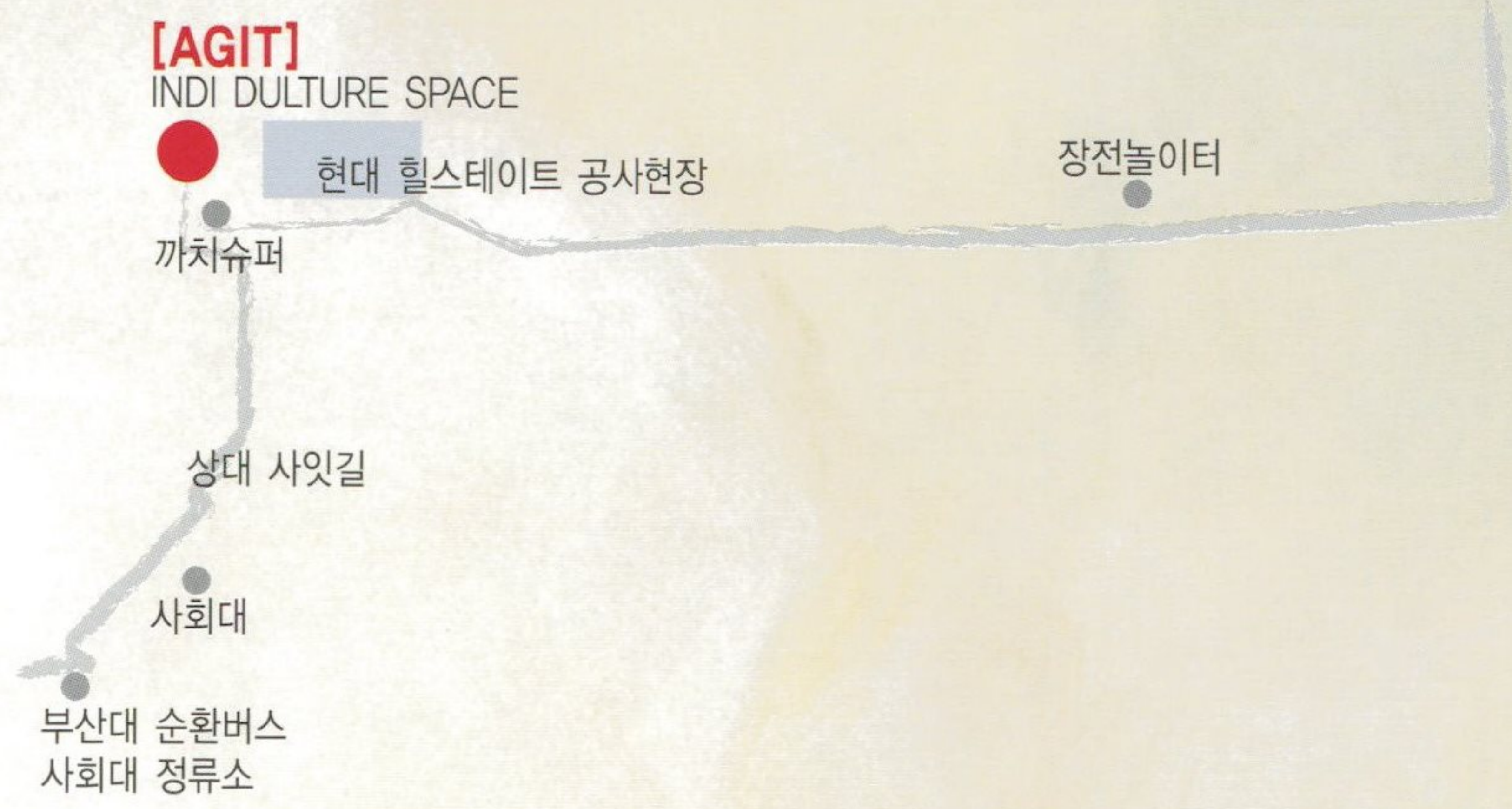
역사적 파란이 심했던 현대의 50여 년간은 중국대륙에서 많은 장르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유독 '북대항판화'는 힘찬 칼질과 선명한 구도 및 색채의 대비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노동 현장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지난 세월을 당당하게 견뎌와 오늘날에는 한편의 역사 스펙셜로서의 가치와 의미까지도 던져 주고 있다.

부산독립문화의 메카를 꿈꾸는

# 대안 문화공간 아지트







새로운 대안문화를 모색하는 부산의 독립문화꾼들이 뭉쳤다. 부산독립문화의 메카를 꿈꾸는 대안문화공간 아지트가 지난 5월 17일 개관식을 갖고 부산지역 독립문화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기원하는 소중한 첫 발을 내디었다.

아지트는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를 주축으로 부산독립예술제 사무국, Charon 레코딩 스튜디오, 갤러리 7346과 인디밴드, 그라피티 라이터, 뮤지션 등 다양한 장르의 독립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지트 탄생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는 유흥 일색의 소비문화가 판치던 부산대학교 인근 대학로를 무대로, 독립문화 거리축제를 주도해온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문화단체이다. 아지트는 이들의 주 활동무대인 부산대학교 인근 주택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유치원이었던 건물을 새롭게 정비한 아지트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과 야외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건물 외벽에 그려진 화려한 그라피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글 숲을 연상시키는 원색의 그라피티에서 아지트의 영문 'AGIT'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사무실과 영상편집실이 들어선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전시와 퍼포먼스,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만날 수 있다. 현재 개관기념전으로 아지트에 참여한 작가와 단체들의 그동안 활동을 정리한 자료전이 열리고 있다. 또 1, 2층 한편에는 입주작가들을 위한 작업실이, 지하에는 음악스튜디오와 연습실이 구비되어 있어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야외수영장과 놀이터가 들어서 있던 야외마당은 작은음악회와 퍼포먼스 공연이 가능한 야외상설무대와 작가들의 야외작업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아지트는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지역 문화공간이자,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 작업공간입니다.” 현재 아지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건우 씨. “2년동안 비워져 있던 공간이라 아지트에 쏠리는 인근 주민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는 우선 주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학교 근처이다 보니 아무래도 자취생들이 많은데요, 자취생들을 위한 영화제는 어떨까요? 밴드 단원들의 악기강좌도 재미있을 거 같은데...”

영상,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는 그는 건물정비가 마무리되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바로 그 첫 행사가 ‘제 1회 부산독립예술제’.

9월초에 예정된 ‘제 1회 부산독립예술제’는 록밴드, 힙합뮤지션, 재즈밴드, 국악, 설치미술, 그라피티, 만화, 일러스트, 거리극, 퍼포먼스, 스트리트 댄스, 영화상영, 프리마켓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독립문화 축제이다. 대안문화공간 아지트는 물론이고 부산대학교 인근 대학로와 전시장, 소극장, 클럽, 그리고 온천천 등 부산대학교 인근지역이 축제의 장이 된다.

“인지도가 미약한 독립문화의 활동상을 대중들에게 적극 알려내고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독립문화단체와 작가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건우 사무국장은 앞으로 아지트가 지역 독립문화의 거점지로, 부산지역 독립예술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든든한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대안문화공간 아지트(funnystreet.cyworld.com)

## 詩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알바트로스.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나는 이 알바트로스처럼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는 시낭송회가 바로 '알바트로스'이다.

알바트로스 시낭송회는 지난 2006

년 12월 20일 제 1회 시낭송회를 개최하면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금은 매달 셋째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정기 시낭송회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알바트로스 시낭송회는 부산시인협회 소속 재부 시인들과 재능 시낭송협회 회원인 전문 시낭송가들, 그리고 시를 사랑하는 일반시민들이 '시를 알리는 전령사'로 시낭송의 즐거움을 함께 하고 있다.

여느 시낭송회와는 달리 알바트로스 시낭송회에서는 음악이 빠지지 않는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 특별한 무대 뒤에는 알바트로스 시낭송회를 창단하고 현재 모임을 이끌고 있는 회장 김옥균 시인의 역할이 크다. MBC 부산문화방송 음악전문 프로듀서 출신으로, 음악회 기획에서부터 시낭송 배경음악 선곡까지 모든 음악연출을 책임지고 있는 김옥균 시인은 회원들이 보내주는 자작시에 가장 어울리는 최고의 배경음악을 선곡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시낭송회는 회원들의 자작시 낭송과 초대시인의 시낭송, 그리고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는 '명사들의 애송시'와 일반 독자들

의 '애송시 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접시꽃 당신'의 도종환 시인, '바다가 보이는 교실'의 정일근 시인 등이 시낭송회를 참석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부산과 울산지역 문인들이 함께 한 '한여름 밤의 시낭송회'를 울산에서 개최해, 두 지역 문인간에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또 이청준 생가(전남 장흥), 정지용 생가(충북 옥천), 김삿갓 문학기행(강원 영월) 등 문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다양한 문학기행 행사도 비정기적으로 가져오고 있다.

알바트로스 시낭송회는 시낭송의 즐거움을 지역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매년 구포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시낭송회'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회원들의 자작시를 서예작품과 사진, 그림, 도자기로 제작하여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영광도서갤러리와 구포도서관, 반송도서관, 장유도서관에서 특별시화전을 가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지난 시낭송회에서 발표된 시를 한권의 책으로 엮은 시집 '겨울 슬픈 태안이여'와 회원들이 녹음한 시낭송 CD음반을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7월 1일부터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제 1기 시인학교 & 시낭송학교'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25일까지 5개월동안 격주로 열리는데, 시인지망생 및 시 애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창작과 시낭송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좌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김옥균 시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의 세계로 자유롭게 비상하길 바란다는 그는 앞으로 타 지역 시인, 그리고 시낭송회와도 보다 활발한 교류를 가져나갈 계획이다.

■문의/알바트로스 시낭송회(cafe.daum.net/sinuk)

## 안데스 II

# ‘El Condor Pasa’와 ‘환상의 폴로네이즈’



현재 우리가 월드뮤직이라 부르는 음악들의 일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 대상 속에 있었다. 언젠가 이 지면을 통해 월드뮤직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월드뮤직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친숙했던 곡들도 적지 않다. 클래식이든 팝 음악이든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곁에 두어 왔던 사람들이라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월드뮤직의 명곡들을 만나왔을 것이다. 지난 ‘파두’ 편에서 만났던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검은 돛배(Barco Negro)’나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권의 친숙한 명곡들, 또 이번 호에 만나게 될 두 곡의 안데스 음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월드뮤직이라는 생경한 장르의 일부로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친숙한 곡, ‘El Condor Pasa’와 ‘Polonaise’가 안데스 음악의 두 번째 이야기다.

전설적인 팝 듀오 ‘Simon & Garfunkel’의 명곡이기 이전에 안데스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기도 한 ‘El Condor Pasa’는 몰락한 잉카 문명의 서글픈 전설이 담겨져 있는 노래다. 스페인의 포악한 식민통치는 1700년 중엽 결국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주모자였던 ‘투팍 아마루 2세’는 스페인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죽은 그가 안데스를 상징하는 새인 콘도르(Condor)로 환생해서 안데스 창공을 날며 인디오들을 보호한다는 전설이다. 이 곡은 19세기 말 ‘다니엘 알로미아 로블레스(Daniel Alomia Robles)’라는 인류학자가 옛 잉카의 민속음악을 채집하던 중 한 인디오 노인으로부터 직접 채록하여 복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세계적인 안데스 그룹 ‘로스 잉카스(Los Incas)’가 프랑스 파리의 공연 무대에서 이 곡을 연주하게 된다. 이 때 감동을 받은 ‘폴 사이먼(Paul Simon)’이 그룹의 도움을 얻어 영어 가사를 붙인 곡으로 발표했고, 불후의 팝 명곡으로 남게 되었다. ‘철새는 날아가고’라는 우리 번안제목으로 알려지기

황 윤 기 |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도 했던 이 곡의 제목 ‘El Condor Pasa’는 ‘콘도르가 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디오들 사이에 전해오던 원래 노래는 안데스의 상징인 콘도르에게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갈망과 향수를 토로하고 있는 서글픈 노랫말을 담고 있다. 아픈 역사를 보듬고 살아온 안데스 인디오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곡인 것이다.

1956년 프랑스 파리에서 안데스 뮤지션들로 결성된 ‘로스 잉카스’는 현재에도 그들의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안데스 음악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는 그룹이다. 이들은 당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안데스 음악이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팝 팬들에게 낯설지 않은 ‘우루밤바(Urubamba)’라는 그룹 역시 ‘로스 잉카스’의 ‘차랑고(charango)’ 주자였던 ‘호르헤 밀치버그(Jorge Milchberg)’가 독립적으로 결성했던 팀으로 폴 사이먼의 공연 무대와 레코딩에 동행하면서 안데스 음악의 신비로운 매력을 팝계에 전파했다. 이들이 유럽인들에게 들려주었던 음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곡이 바로 ‘El Condor Pasa’였다.

너무나 익숙한 선율을 지닌 ‘환상의 폴로네이즈’ 역시 안데스 음악의 명곡으로 남아 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 2 번 b단조 BWV 1067’ 중 제 5 곡 ‘Polonaise’를 안데스 음악의 전통적인 분위기로 연주하며 유명해졌던 이 곡은 ‘로스 차코스(Los Chacos)’라는 그룹이 남긴 곡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음악 팬들에게 안데스 음악의 인상적인 면모를 각인시켰던 또 하나의 그룹이었다. 놀라운 것은 멤버 전원이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이색적인 팀이었다는 것이다. ‘로스 잉카스’를 비롯한 안데스 그룹들의 활동으로 인해 195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파리에는 남미 민속음악에 대한 커다란 관심이 일어났다. 이 장르의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생기기도 하고, 프랑스인만으로 구성된 안데스 음악 그룹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 중 가장 명성이 높았던 그룹이 바로 ‘로스 차코스’였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리사이틀**

대극장 | 7월 6일 일요일 오후 7:00

14세 최연소 나이로 뉴욕의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300 여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주인공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부산 연주회.

5세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한 오주영은 초등학교 5학년때 미시건주 국제 음악캠프 콩쿠르에서 초, 중등부 1위를 차지해 현지 음악인들을 놀라게 했다. 뉴욕 카네기홀 데뷔 무대에서 '천재적인 재능뿐 아니라 진정한 거장으로서의 테크닉과 음악성을 지닌 열정적인 연주자'란 평을 받은 오주영은 지난해 12월 모든 연주자들이 꿈꾸는 무대이자 런던 최고의 실내악 홀인 위그모어 홀 리사이틀에서 무려 6번의 커튼콜을 받을 정도로 런던 음악애호가들을 매료시켰다.

**프로그램**

- 비탈리/사콘느
- 사라사테/안달루시아의 로망스
- 쇼팽/녹턴 작품 9 제 2번 내림마장조
- 크라이슬러/사랑의 기쁨 등 수곡
- 피아노/Carlos Avil

-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국제신문 창간 61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대극장 | 7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3일 일요일 오후 4:00

2006년 7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초연된 이래 2007년 예술의전당과 경희궁 야외무대 등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 부산무대.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뮤지컬 넘버와 배우들의 열정적이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라이선스 뮤지컬의 흥수 속에서 창작뮤지컬의 새로운 장을 연 '화성에서 꿈꾸다-이산의 꿈'은 2006년 10월에 열린 제12회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총 6개부문(최우수작품상, 연출상, 각본상, 음악상, 남녀 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어 연출상과 음악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했고, 2007년 제 1회 더 뮤지컬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서울연극제 대상, 연출상, 동아 연극상 대상, 희곡상, 연출상, 백상예술대상 연출상 등을 수상한 이윤택의 극본·연출, 강상규의 음악과 함께 3년간 정조로 열연하고 있는 민영기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

- 관람료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 A석 50,000원 · B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25-8130), 국제신문(500-5222), 가마골소극장(245-0042)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교류음악회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부산연주회**

7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33년 창단, 뛰어난 300여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부산연주회.

우크라이나 음악계를 이끌어 가는 충추적인 악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는 도네츠크 필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2002년 훌륭한 악단에 명명되는 아카데미 칭호를 받으며 대 작곡가 프로코피에프 이름을 하사받았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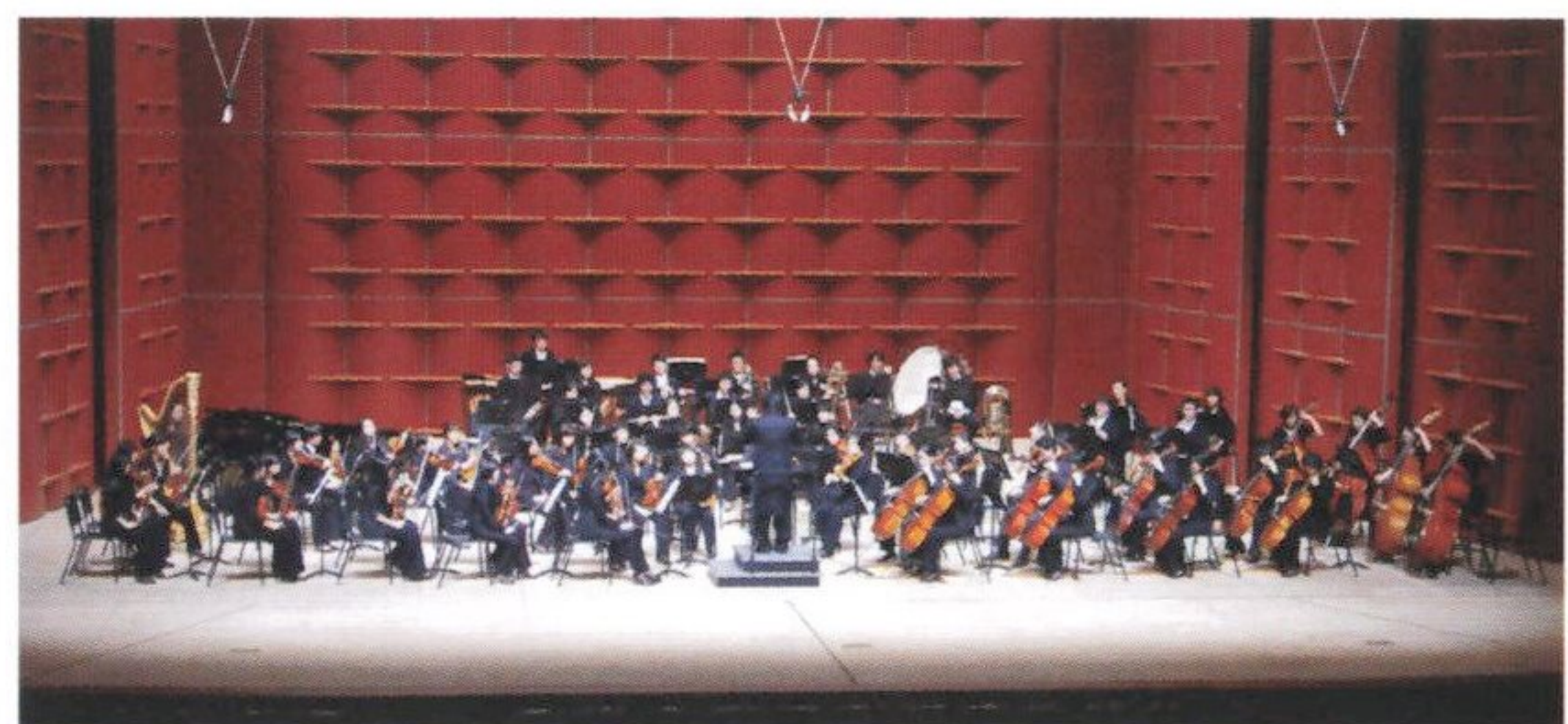
-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안정준/아리랑
-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라장조 K.218 등 수곡
- 지휘/돌린스키 알렉산더
- 협연/박예지(바이올린, 부산예중 2년)
- 김초롬(바이올린, 부산예고 1년)
- 강구해(소프라노, 인제대 3년), 김혜영(소프라노)
- 이지언(피아노, 동아대 4년)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한국국제예술교류회(010-9798-943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7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7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 연주자들이 펼치는 '제 7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프로그램**

치마로사/2대의 플루트 협주곡, 1악장



## 26th 유: 콘서트 클래식 프리포즈Ⅲ 다이내믹

중극장 |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국제신문 한낮의 유콘서트 스물 여섯 번째 만남 클래식 프리포즈Ⅲ 다이내믹.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히 날려 보낼 수 있는 다이내

믹한 교향곡과 밝은 클래식 선율로 관객들에게 프리포즈한다.

### 프로그램

스트라우스/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베르디/운명의 힘 서곡

뮤지컬 'My fair Lady'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보로딘/폴로베츠인의 춤

드보르작/교향곡 '신세계로부터' 중 4악장 등 수곡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오충근)

· 협연/정태미(소프라노, 동서대학교 교수), 강학연(테너,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 구독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500-5222), 예술기획(0505-700-9798)



테너 박인수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예술에의 초대 200호 기념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음악'

중극장 | 7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1992년 1월호로 창간된 부산문화회관 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통권 200호를 맞아 부산시민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음악'.

시낭송과 클래식기타 연주, 우리 시와 시에 어울리

는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무대를 꾸민다.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안단테 칸타빌레, 발레 '호두까기인형' 중 갈대 피리의 춤 - 꽃의 왈츠 - 러시아 춤

로저스/사운드 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클래식 기타 연주/알함브라궁의 추억, 태극기 휘날리며, 섬집아기

이현철 편곡/동요사계-봄(꽃밭에서, 봄노래), 여름(산바람 강바람, 고기잡이), 가을(가을 밤, 가을), 겨울(고드름, 겨울바람)

퓨전 국악/이산 OST '약속', 가요 '깊은 밤을 날아서', 상젤리제, 오블라디 오블라다 등 수곡

· 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 필 앙상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김상훈(시인), 강은교(시인), 박인수(테너), 고충진(클래식기타리스트), 퓨전국악그룹 희나래

■ 관람료 초대(정기회원 1인 2명 무료입장, 음반·도서 기증자 무료입장)

■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터키'  
하이든/첼로 협주곡 제 2번, 1악장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이지현(부산대 2년, 플루트), 박소담(경성대 2년, 오보에), 전지원(동아대 4년, 바이올린), 정혜주(부산대 1년, 첼로), 김혜진(인제대 4년, 바이올린), 박선영(동아대 4년, 오보에), 탁서연(부산대 3년, 바이올린)

관람료 균일 2,000원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 부산시 시카고시 자매도시 1주년 기념 미국이 자랑하는 시카고 칠드런스 콰이어 첫 내한 공연

7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코러스 아메리카가 선정한 로버트 쇼의 뒤를 잇는 역량있는 지휘자 조세핀 리가 지휘하는 시카고 칠드런스 콰이어 부산연주회.

1956년 시카고시 48개 학교 3,000명 단원 중 엄선된 5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시카고 칠드런스 콰이어는 자연스런 소리와 함께 화려한 울동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미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하의 모테트, 마드리갈 등 고전합창, 남아 프리카부터 한국까지 각 대륙의 민요, 위촉곡을 포함한 미국합창음악, 강한 비트의 리듬앤 블루스, 뮤지컬 합창 등을 들려준다.

· 우정출연/기장 청소년리코더 합주단

관람료 초대

문 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앙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정기연주회

7월 5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현대음악의 가장 큰 특징인 다양성을 통해 현대와 고전의 음악이 접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Ensemble Iris In Busan'은 신들의 메신저 역할을 한 무지개 여신 'Iris'를 단체 명칭으로 정하고 음악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메신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시립무용단 2008 여름마당춤판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

야외공연장 | 7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8:00

한국의 전통적인 동화, 설화를 해학과 신명, 감동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그려내 뜨거운 사랑을 받은 부산시립무용단이 2008년 새롭게 선보이는 여름마

당춤판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

여름밤을 시원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는 전통 설화 '장화홍련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춤과 노래, 연기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가족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번 공연은 유니세프를 후원하기 위해 모금활동과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담은 유니세프 사진전이 함께 열린다.

- 안무·구성/홍기태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훈련 지도/이윤혜 (훈련지도자)
- 대본각색/하현관 (공연예술팀 '사람(Human Projector)' 대표)
- 연출/오정국 (극단 시나위 상임연출가)
- 출연/장화-권봉정(수석), 홍련-오수연, 아버지-이성원, 어머니-강미향, 첩-김경미, 장쇠-박상용 등 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

- 관람료 무료(선착순 입장) \*우천시 중극장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



수석지휘자 김강규 팝 칼럼니스트 임진모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및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팝음악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팝합창"

대극장 |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1:00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팝음악 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이

야기가 있는 팝합창'. 맛깔 나는 해설을 들려줄 팝 칼럼니스트 임진모는 현재 MBC 표준 FM '조영남 최유라의 라디오 시대'에서 '디카팝송'과 '임진모의 뮤직스페셜'을 진행하고 있다.

#### 프로그램

- Mamma Mia(arr. R.Allwood & L. Sansun)
- Thank You For The Music(arr. R.Allwood & L. Sansun)
- Where Do I Begin (영화 '러브 스토리' 중)
- He was Beautiful(영화 '디어 헌터 중), Summer nights(영화 '그리스' 중) 등 수곡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해설/임진모 · 협연/볼레로(색소폰 콰르텟-명단), 김진훈(드럼)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프로그램

- 모차르트/피아노 4중주 제 1번 사단조 K.478
- 쇼스타코비치/현악 4중주 다단조 작품 110
- 백현주/첼로와 피아

노를 위한 疾風怒濤(질풍노도)

슈니트케/피아노 4중주

- 음악고문/김영준(서울시립대 교수, 바이올린), 장형준(서울대 교수, 피아노)
- 바이올린/백재진, 김준영, 이기종, 이리나
- 비올라/김지연, 임정은
- 첼로/양욱진
- 피아노/정성흡 · 작곡/백현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원로교향악단 창단 기념공연

7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수십년간 음악의 불모지 부산에서 클래식 음악의 초석을 다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제 1세대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원로교향악단 창단 연주회.

지난 4월, 60인의 원로 음악인들로 결성된 부산원로교향악단은 부산클래식의 음악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새로운 음악 세대들에게 전승시키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프로그램

- 요한 스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 베토벤/트리플 콘체르토 작품 56
- 노상현/도라산역
- 이영주/연가
- 지휘/한병함
- 협연/백재진(바이올린,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박병훈(첼리스트), 조현선(피아노, 경성대학교), 이철성(테너), 배수진(소프라노)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 김혜린 피아노 독주회

7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짜르테움에서 피아노 연주과, 동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김혜린의 독주회.

지난해 말 귀국한

김혜린은 부산피아노연주가 클럽이 주최한 제 25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에서 솔로 연주 및 가곡 반주 등을 필두로 국내 연주활동을 시작했다.

#### 프로그램

프랑크/프렐류드, 코랄과 푸가

브람스/환상곡 작품 116

베토벤/소나타 제 21번 작품 53 '발트슈타인'

관람료 초대

문의 김혜린(010-6717-9932)

### 2008 제 17회 부산무용제

7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 무용의 오늘을 엿볼 수 있는 제 17회 부산무용제.

올해는 한국무용, 현대 무용, 발레 등 부문에서 4개 팀이 참가, 열띤 경연을 펼친다. 대상 수상팀은 전국 무용제에 부산대표로 참가한다.

#### 프로그램

강미리 홀무용단 '처음 꽃을 사랑한 사람'(안무/강미리·대본, 연출/박병욱·무대감독/이정남·출연/신용구, 이한순, 김경미, 이혜진, 신지현, 김지영, 강경희, 강미리 외)

M - Note 무용단 '저수지의 개들'(안무/신승민·출연/남대우, 정병철, 정진우, 박재현, 허종원, 임병우, 김동석, 최우석, 신승민)

Logo 현대무용단 'S' 바이러스 돌연변이(안무/손영일·예술감독/장정윤·출연/손영일, 강정일, 김현희, 윤선홍, 최정식, 박호환, 정혜정, 문지혜, 이수정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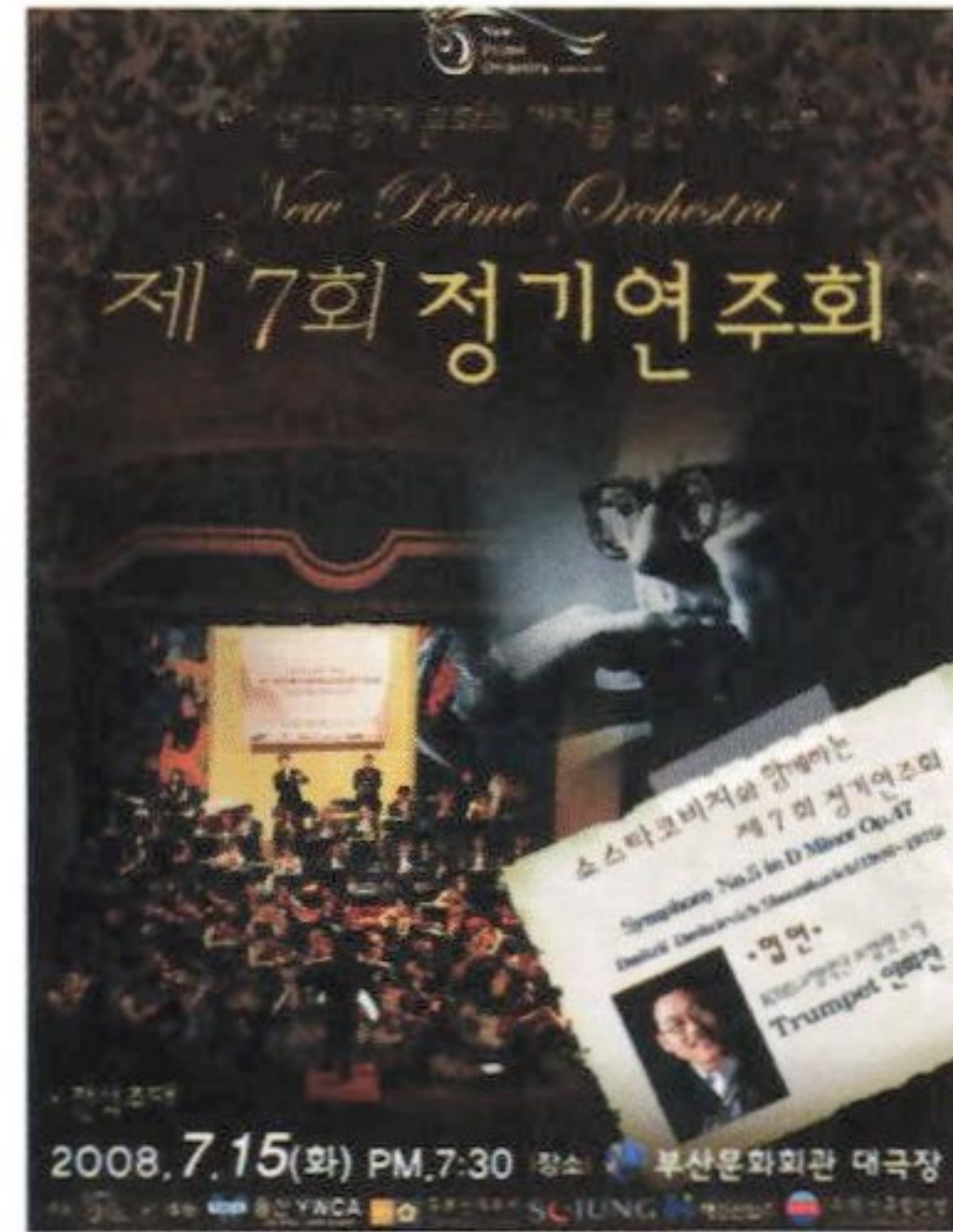
부산발레연구회 '왜?'(안무/윤은정·총예술감독/주수광·출연/김정숙, 이성희, 김희진, 박정희, 박종위, 김청수, 김태윤, 김사라, 박효진 외)

관람료 일반 10,000원·학생 5,000원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 쇼스타코비치와 함께하는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7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 힘이 넘치는 웅장한 사운드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의 제 7회 정기연주회.

러시아 마그니타 글링카 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임준오

가 지휘하고 KBS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안희찬이 협연한다.

####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5번 라단조 작품 47

관람료 초대

문의 뉴프라임 오케스트라(816-1104, 9104)

### 제4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Sing Your Dreams'

7월 19일 토요일 오후 1:00(수상팀 시상식 및 공연 오후 7:30) 중극장



2005년 APEC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네 번째 무대.

이번 4회 대회는 'Sing Your Dreams'을 주제로

전국의 우수한 8개의 초등부합창단과 9개의 중고등부합창단, 900여명이 노래한다.

국제대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늘푸른 오스카빌 소년소녀 합창단을 비롯, 부산 CBS 소년소녀 합창단, 흥천 무궁이어린이합창단 등 8개의 초등부합창단과 지난해 금상을 수상한 김해월산중학교, 1회대회 금상을 수상한 인천서구소년소녀합창단, 지난해 동상을 수상한 목포 정명여자고합창단과 구미 현일고등학교 합창단 등 중고등부 9개팀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 출연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형예)

구학초등학교 합창단(지휘/구영옥)

늘푸른 소년소녀합창단(지휘/황은영)

대동초등학교 합창단(지휘/유대현)

부산CBS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정순갑)

안동MBC 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원섭)

용문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박지용)

흥천 무궁이 어린이 합창단(지휘/성일용)

고한중학교 합창단(지휘/김은식)

김화여자중학교 합창단(지휘/황승환)

동래여자중학교 합창단(지휘/김태하)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합창단(지휘/이종석)

영운중학교 합창단(지휘/김지현)

월산중학교 합창단(지휘/최민성)

인천서구 소년소녀 합창단(지휘/박문전)

정명여자고등학교 합창단(지휘/김영문)

현일고등학교 합창단(지휘/진혜숙)

관람료 무료

문의 재단법인 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716)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The early years

### 시민회관

#### 양희은 부산 콘서트 '소풍'

7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대극장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문의 (주)라이브플러스(1588-8477)

#### 가족뮤지컬 빨간 모자

7월 5일-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극장

길거리에서 인형극 '빨간 모자'를 공연하는 늙은 할아버지와 손녀의 하루를 통해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가족뮤지컬 '빨간 모자'.

· 연출/이은성  
· 출연/김수진, 박재춘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DUBU기획(02-2654-6854)



#### 대니정의 작은 음악회

7월 6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감미롭고 빼어난 연주로 '한국의 케니 G'라는 찬사를 받아온 색소폰 주자 대니정은 국내 음악인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해외에서도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주)기획시대(908-9001)

#### 가족뮤지컬 따각따각 피노키오

7월 12일-1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극장

말썹꾸러기 피노키오의 좌충우돌 모험이야기가 천인형과 그림자극, 흥겨운 탭댄스와 어우러져 펼쳐지는 라이브 가족뮤지컬.

· 작, 연출/김종연  
· 출연/박경아, 김혜영, 정혜원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DUBU기획(02-2654-6854)



#### 제 2회 부산섬머뮤지컬페스티벌 굿바이 걸

7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8:00  
27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을 선보이는 제 2회 부산섬머뮤지컬페스티벌.

전직 미모의 브로드웨이 댄서이자 이혼녀인 폴라와 거만하고 괴팍한 배우 엘리엇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를 통해 30대 중반의 새로운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그린 로맨틱 코메디 뮤지컬 '굿바이 걸'.

· 출연/하희라, 정성화, 이성원, 최나래 외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 금정문화회관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 ■ 2일 라온오카리나앙상블 연주회

2001년 10월 부산음악교육협회의 원장들로 결성된 라온오카리나앙상블 연주회.

· 특별출연/테너 장원상

##### ■ 9일 부산아카데미유스앙상블 창단연주회

국내외 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봉사의 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3월 창단한 청소년 현악합주단인 부산아카데미유스앙상블 창단연주회.

· 지휘/백진현(신라대학교 교수)

· 특별출연/박종근(오카리나), 장은영(소프라노), 김지호(테너)

##### ■ 16일 예술휘파람 연주와 함께하는 아담스플루트앙상블 연주회

휘파람연주자 임채흥과 아담스플루트앙상블이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 ■ 23일 한·일 음악교류회-파도에 실려온 사랑의 노래

2007년 5월 퇴임교원들을 주축으로 창단된 여성합창단인 나라합창단과 일본 워치앤쿠로토타합창단이 함께하는 한·일 음악교류회.

##### ■ 30일 김화정과 친구들의 노래 이야기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해설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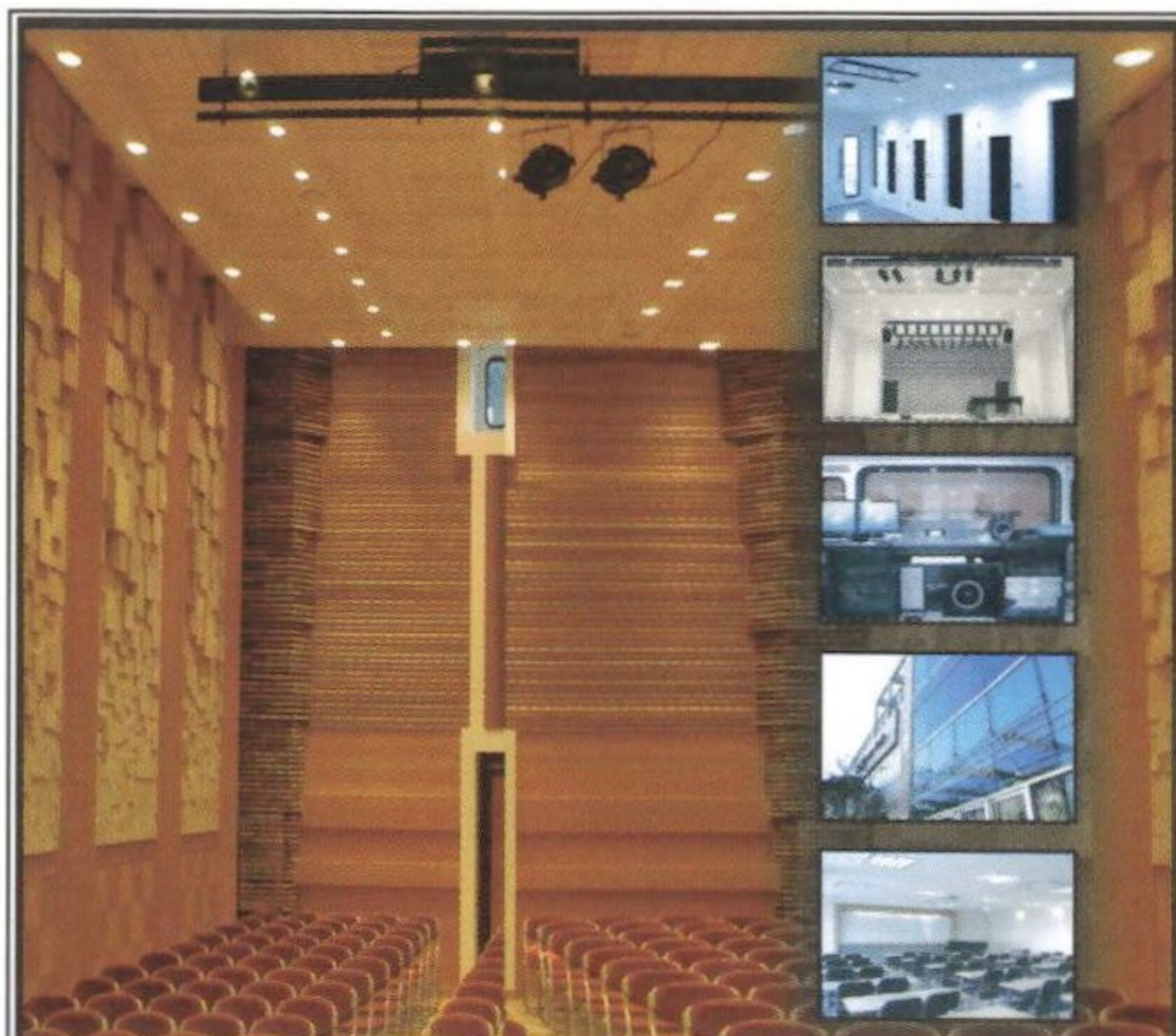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제 2회 부산섬머뮤지컬페스티벌 외 당신이 잠든 사이

7월 4일(금)-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대공연장



**Glovil Art Hall**  
e&ording Studio

가수 '비'가 녹음하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 수준 어쿠스틱 연주를 녹음을 부산에 있습니다. \_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 2008년 하반기 대관 신청 중  
공연/녹음/음반제작/제자발표/마스터클래스/세미나

GloVil Art Hall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기획팀  
051+505+5995 | glovil@paran.com | www.glovil.org



2006년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작품상, 작사 극본상을 수상한 창작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가진 것 없이 상처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웃음과 감동으로 전해준다.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 KCO Quartet-피아노의 만남

7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김홍준, 비올리니스트 윤진원, 첼리스트 정재운으로 구성된 KCO(Korea Chamber Orchestra) Quartet와 피아니스트 정성희와의 앙상블 무대.

#### 프로그램

- 볼프/이탈리안 세레나데
- 드보르작/현악 4중주 '아메리카'
- 브람스/피아노 5중주 바단조 작품 34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강미경 플롯 귀국 독주회 -나비를 꿈꾸며-

7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소공연장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강미경 독주회.

관람료 초대

문의 강미경(010-4947-1979)



### 부산아마추어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7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2005년 7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클라리넷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아마추어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관람료 무료

문의 황남용(010-8007-8087)



### 제 3회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7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2006년 8월 초·중·고등학생 70여명으로 창단된 부산시교육청 소속 청소년오케스트라인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비발디(편곡/박성완)/사계 중 '여름'
-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다장조 K.467
- 하차투리안/발레모음곡 '가면무도회' 등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협연/조현선(피아노, 경성대학교 교수)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605-5133)

## 해운대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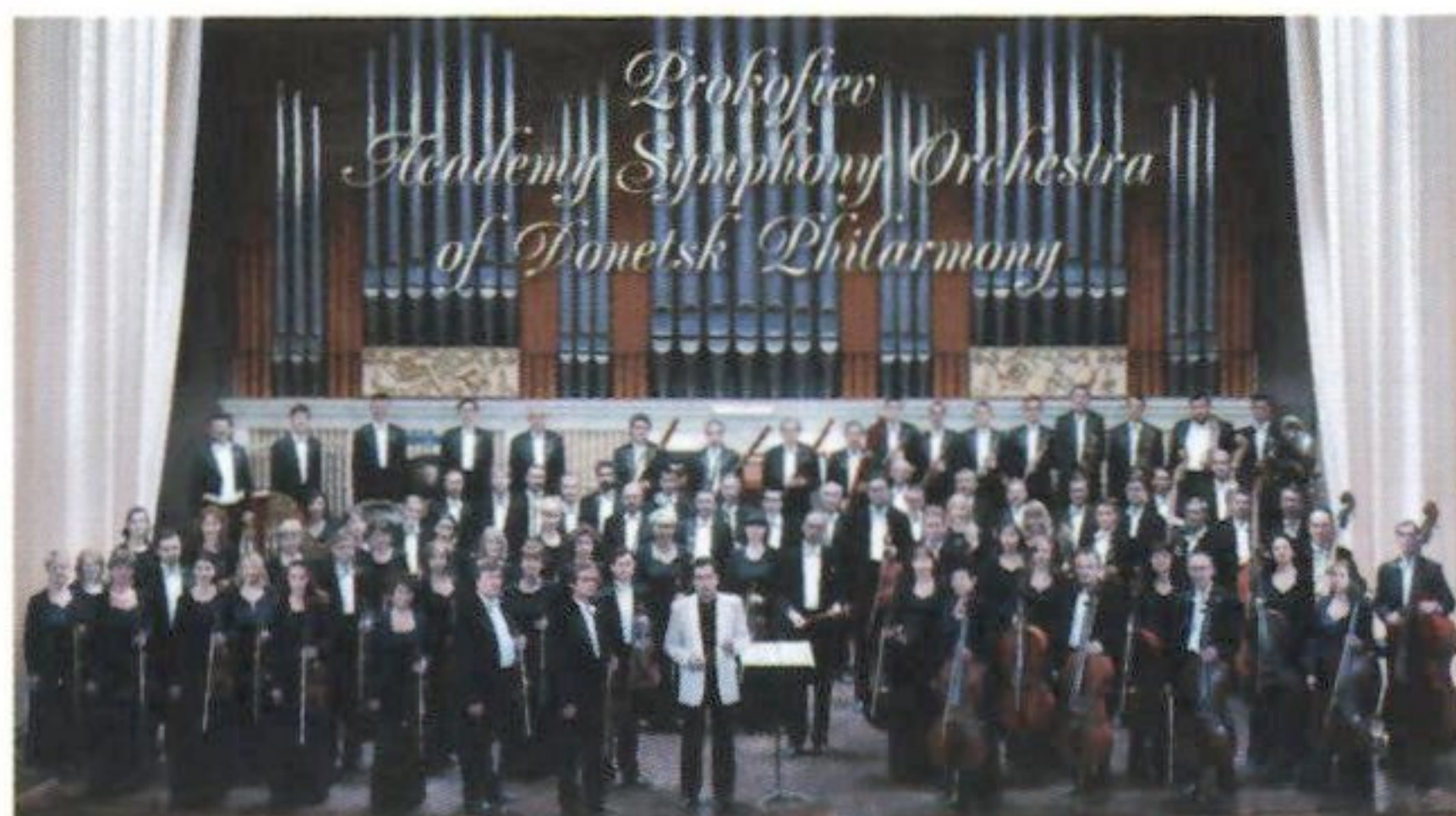
### 오페라단 가야 창단 20주년 및 제 19회 정기 공연 오페레타 '박쥐'

7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4:00, 7:30 대공연장

19세기 음악과 환락의 도시 빈을 무대로, 귀족들의 도덕적 타락을 코믹하게 그린 요한 스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 지휘/박종휘 · 피아노/김정은, 고은정
- 연출/안주은 · 총감독/이창준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심포니오케스트라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오페라단 가야(747-6139)



###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7월 13일 일요일 오후 6:00 대공연장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1주년 기념 공연으로 마련되는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 프로그램

- 프로코피에프/클래시컬 심포니
-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내림마장조 K.449
- 로시니/피렌체의 꽃 파는 소녀 등 수곡
- 협연/김정화(피아노), 장원상(테너), 이보람(소프라노)
-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제 2회 부산썸머뮤지컬페스티벌 파이브코스 러브

7월 19일(토)-8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대공연장

### 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레베이터은행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

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국 산: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외국산: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영·일 명 출신중 색상불변 선물용최고

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

### 새 소식!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유

### 한국발명특허획득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낱장지도(값 5,000원)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올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CGV10% 적립 통도원타워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어느 하루 밤, 다섯 곳의 레스토랑에서 벌어지는 다섯 가지 사랑의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묻는 코믹뮤지컬 '파이브 코스 러브'.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 을숙도문화회관

### 숙명가야금연주단의 러블리 가야금

7월 26일 토요일 오후 8:00 대공연장

1999년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오케스트라인 숙명가야금연주단 초청무대.

#### 프로그램

레잇비, 헤이 주드, 오블라디 오블라다, 키싸스 키싸스, 철새는 날아가고, 캐논변주곡 등 수곡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A석 15,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341~3)

## KBS 부산홀

### V.O.S 전국투어 콘서트-부산

7월 12일 토요일 오후 4:00, 7:30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wow엔터테인먼트(1544-9857)

### 웃찾사-전국나들이(부산)

7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7:30

TV 개그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웃음을 찾는 사람들' 출연 개그맨들이 펼치는 폭소 한마당.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요요엔터테인먼트(622-5744)

## 경성대학교

### 2008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젊은 작가전

7월 4일 금요일 오후 7:00 예노소극장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부산의 여름을 알리는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젊은 작가전'.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젊은 안무가들이 출연, 실험적이면서도 패기넘치는 열정의 무대를 선사한다.

#### 작품

泉(안무/이유리 · 훌춤연구회 단원)

사람꽃(안무/임현미 · 연분홍 단원)

0/1(안무/정두순 · 그랑발레 단원)

길에서 길을 묻다(안무/하연화 · 춤패 배김새 대표)

개인적인 중력(안무/강희정 · 예술공동체 마르 대표)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경성대학교(620-4964)



김은이 '태평무'

### 2008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국제무용인의 밤

7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콘서트홀

국내외 실력있는 중견무용인들이 출연, 원숙미 넘치는 무대를 선사할 2008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국제무용인의 밤'.

#### 작품

그 후에 정적 안무/Akelkina Marina)

태평무(출연/김은이 · 동아대학교 교수)

경계상상의 순례자들(안무/Matsuyama Yoshihiro)

After Agnes(안무 및 출연/Juliette Mapp)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안무/임현선 · 대전대학교 교수)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경성대학교(620-4964)

### 김장훈 콘서트

7월 18일(금)-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4:00(월-화요일 공연없음) 콘서트홀

관람료 균일 66,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 제 2회 부산섬머뮤지컬페스티벌 카툰 뮤지컬 두근두근

7월 26일(토)-8월 17일(일) 화-수요일 오후 8:00, 목-금요일 오후 5:00, 8: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월요일 공연없음) 예노소극장

의성어와 의태어로 상황을 표현하고 아카펠라와 탭댄스만으로 음악을 완성시킨 독특한 발상의 카툰 뮤지컬.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 글로벌아트홀

### 차세대 주인공 브니엘 우정음악회

7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차세대 주자들이 펼

**YAMAHA**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감동은 함께 만듭니다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치는 우정의 음악회.

### 프로그램

하이든/첼로협주곡 제 2번 라장조  
쇼팽/피아노소나타 제 2번 등 수곡  
· 출연/오신영, 최유나, 김성애, 노경진, 김소정, 장영란  
관람료 무료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지역 주민과 부산 시민을 위한 관객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7월 27일 일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이 지역 주민과 부산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무대.  
실내악, 합창, 클래식기타,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무료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가톨릭센터



###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 ■1일 疏通(소통)과 함께 하기

전문연주자 뿐 아니라 아마추어 연주자까지 소통하는 음악인들의 장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울타리 없는 음악인들의 모임 '소통' 초청무대.

피아니스트 김병로, 오진희, 임현수, 고은정이 출연한다.

#### ■8일 크로노스앙상블의 행복한 음악회

2002년 창단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잡은 크로노스앙상블은 바로크와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 가장조 KV.581  
마스카니/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등

#### ■15일 3테너 콘서트

부산가톨릭대 음악교육원 교수로 있는 테너 장진규, 허동권, 양승엽이 함께 하는 3테너 콘서트.

#### ■22일 중앙성당 오르간 반주단 연주회

오르가니스트 김민정, 김소희, 김배림, 이진주, 김현지가 들려주는 오르간 음악의 밤.

· 특별출연/옥준(오카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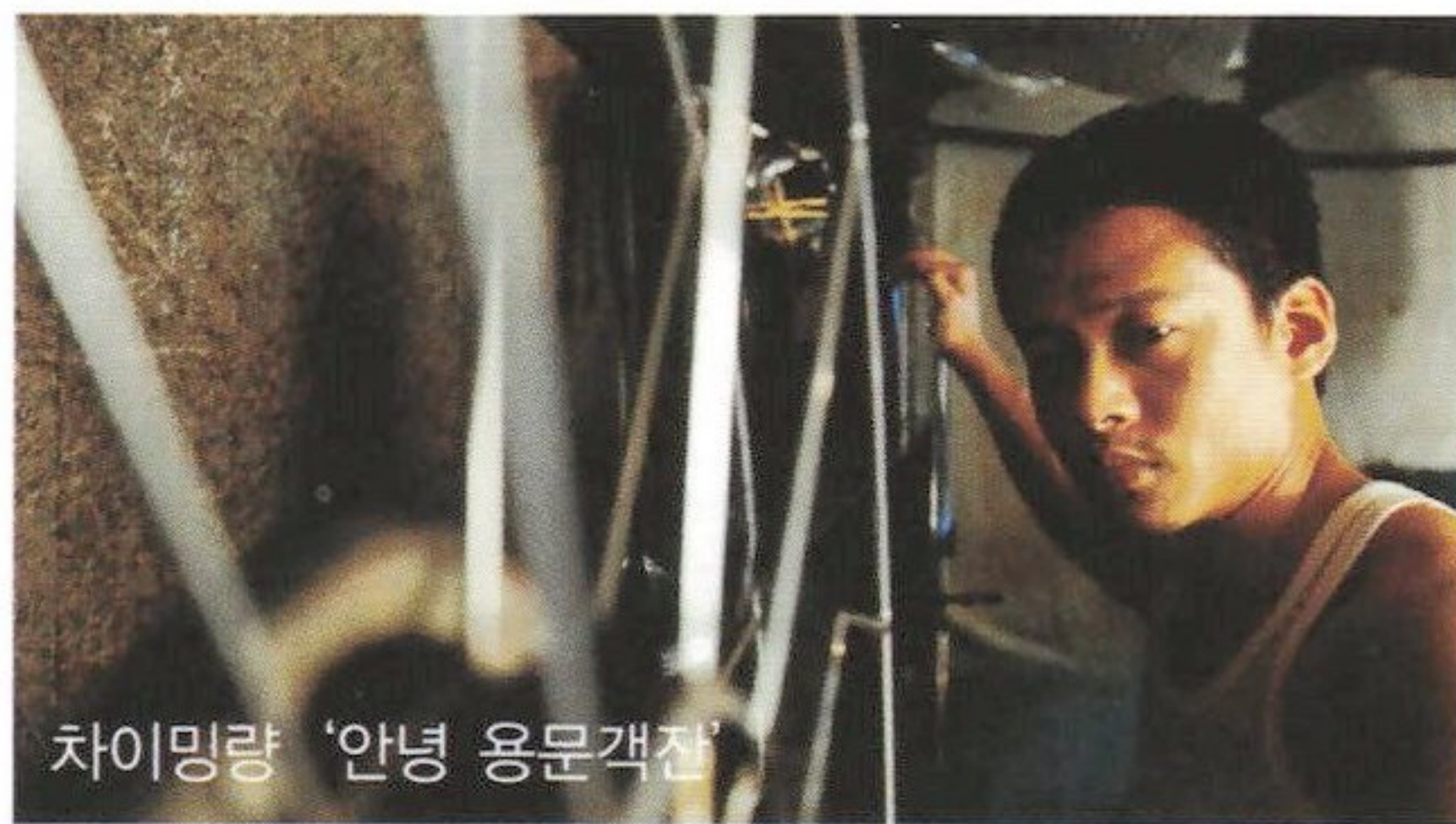
#### ■29일 부산생활성가협의회 특별연주회

GEN성가, 복음성가부터 현재의 생활성가까지 성가의 변천과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생활성가의 밤.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 시네마테크부산



차이밍량 '안녕 용문객진'

### 대만 뉴웨이브 영화제

6월 26일(목)-7월 13일(일) 오후 1:00, 3:10, 5:20, 7:30(월요일 휴관) 시네마테크 부산

대만의 근현대사를 서로 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대만의 대표적인 감독 에드워드 양, 허우 샤오시엔, 이안, 차이밍량의 대표작 11편과 최근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세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대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만 뉴웨이브 영화제'.

관람료 균일 4,000원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 부산의 소극장

### 2008 JUMP 부산

5월 3일(토)-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무술인가족이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과 화려한 아크로바틱이 시선을 사로잡는 화제의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문 의 주아트포(744-4885)

### 그 남자 그 여자

5월 9일(금)-8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운명적인 만남에서 핑크빛 사랑, 그리고 쓰라린 이별과 아련한 추억까지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린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관람료 일반 25,000원 · 중고생 15,000원(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 순수 창작뮤지컬 LOVE IS... II

6월 6일(금)-7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6:00, 일 · 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아트컴과 함께...

☎ 633-2655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물고 물리는 거짓된 상황 속에서 사랑의 꿈을 맞추어 나가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 사랑이야기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따라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LOVE IS...II'.

· 작, 연출/김만중  
· 출연/고민석, 방두환, 김혜성, 정솔지, 김성현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 창작뮤지컬 결혼

6월 20일(금)-7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이강백의 대표적 단막희극을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으로,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한 남자의 결혼대작전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창작뮤지컬 '결혼'.

· 작/이강백 · 연출/정대경  
· 출연/조용수, 유광준, 지현수, 차지은, 박혜미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극단 전위무대 창단 45주년 기념 언덕을 넘어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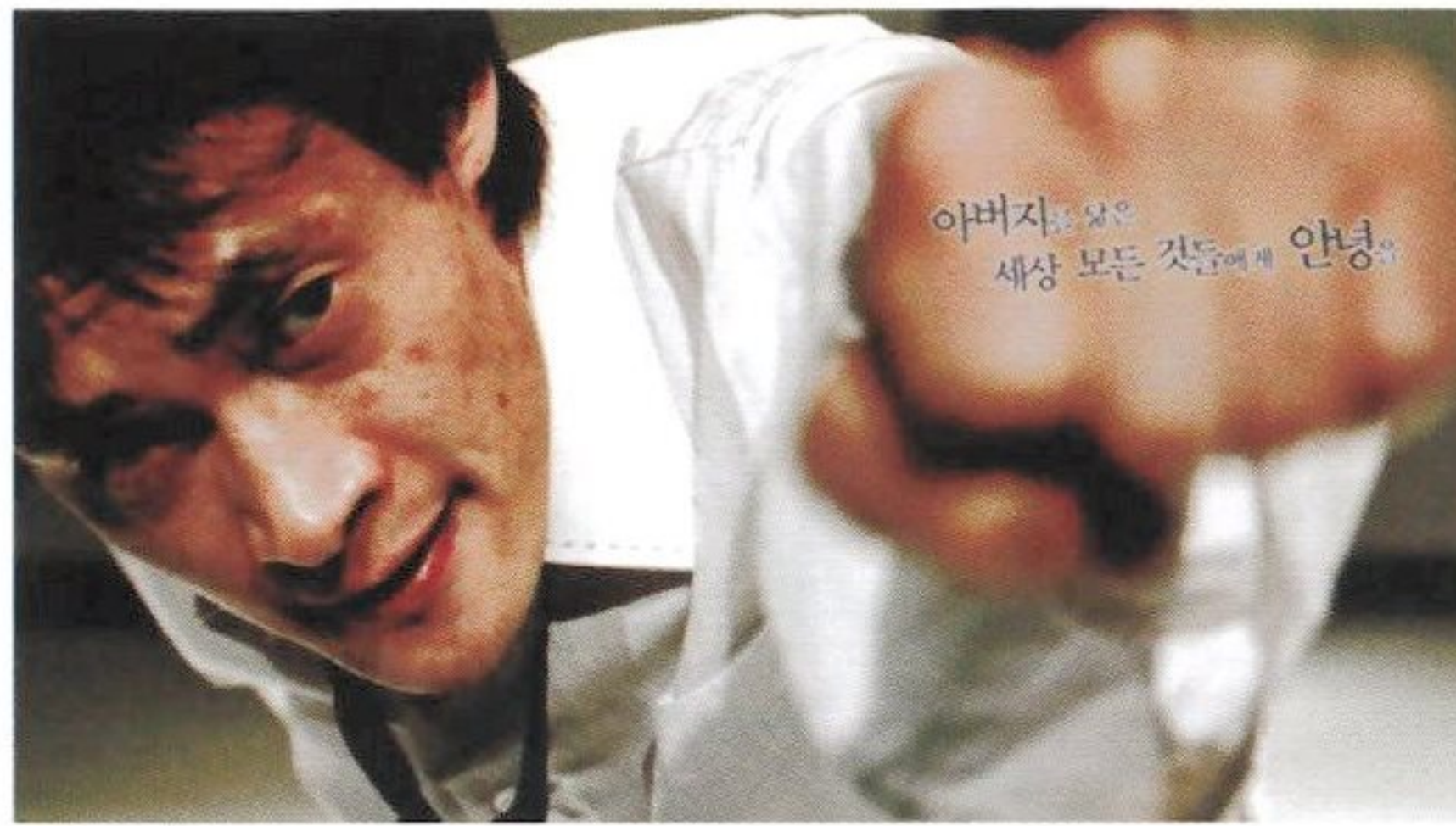
6월 27일(금)-7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인생 60을 넘어서선 초등학교 동창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오해로 인한 노년의 애증을 그린 로맨스 그레이 '언덕을 넘어서 가자'.

· 작/이만희 · 연출/전승환  
· 출연/구민주, 호민, 권철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극단 전위무대(582-2026)



### 어떤 싸움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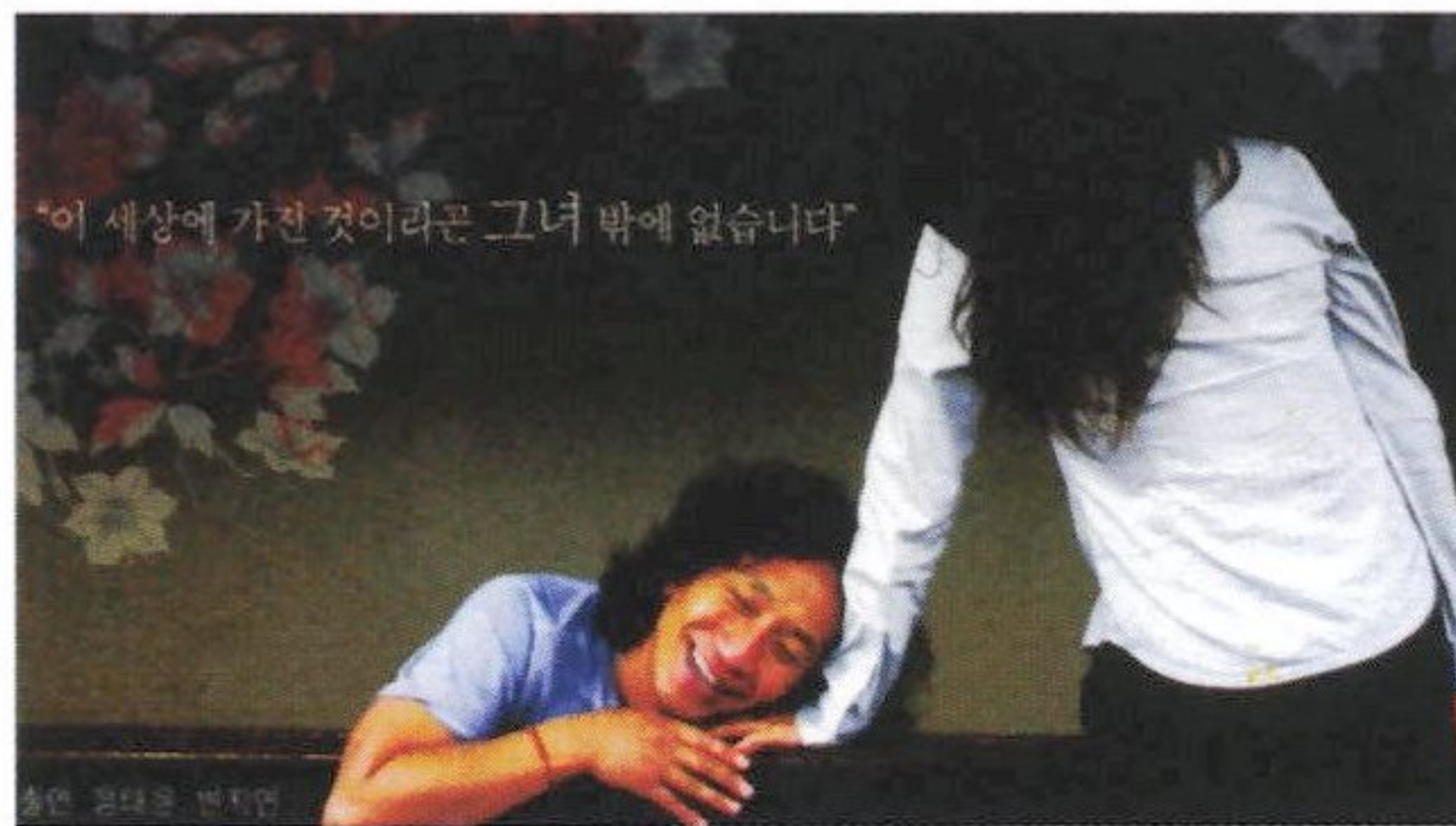
7월 1일(화)-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권력의 폭력에 대한 억압되고 감추어진 적대성을 드러내는 처절한 난투극인 극단 차이의 '어떤 싸움의 기록'.

· 작, 연출/구현철  
· 출연/하현관, 진선미, 유재명, 이효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20% 할인,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 그 남자, 보이척

7월 1일(화)-31일(목)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일-월요일 공연없음) 사랑과 혁명소극장

독일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대표작 '보이척'의 비극적 주인공 역할에 빠져버린 한 남자를 통해 사랑과 욕망, 그리고 현실을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그린 작품.

· 연출/정태윤  
· 출연/정태윤, 변지연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사랑과 혁명 소극장(611-0076)



### 극단 새벽 흠커밍데이

7월 3일(목)-2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7:30, 일요일 오후 5:00

(월-수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1980~90년대의 치열한 현실을 쫓았던 어느 지방대학 사진동아리 회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목격한 역사와 잊을 수 없는 꿈을 이야기하는 극단 새벽 '흠커밍데이' 연장공연.

· 작, 연출/이성민  
· 출연/변현주, 이현식, 임태성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공연 3일 전까지 예매시 10% 할인)

문 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 동서씨어터 기획시리즈

#### 먼데이 PM.5 + Magic Time

7월 3일(목)-5일(토), 9일(수)-12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6:00 용천지랄소극장

2006년 동서대학교 연기과 졸업생들로 결성된 동서씨어터 기획공연.

#### ■ 3일(목)-5일(토) 먼데이 PM.5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이웃을 통해 감동을 전하는 작품.

· 작/박성철 · 연출/박선희  
· 출연/김동기, 유하나, 김경환, 박선희, 홍태규, 이희량, 장한새, 김근화 외

#### ■ 9일(수)-12일(토) Magic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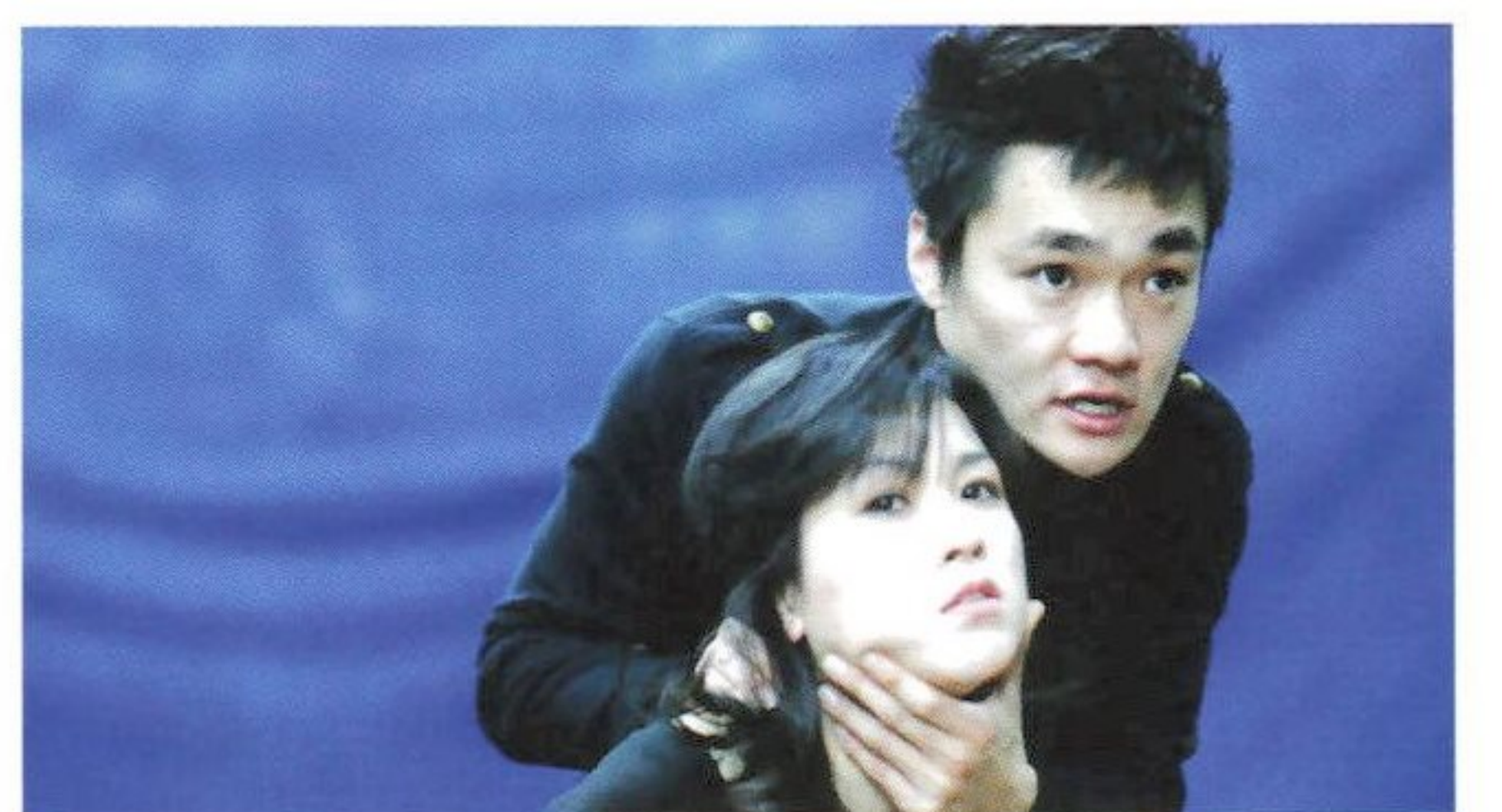
연극 '햄릿'의 마지막 공연을 앞둔 분장실에서 펼쳐지는 해프닝을 통해 배우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

· 원작/제임스 셔먼 · 번안/장진  
· 연출/배성운

· 출연/엄창완, 배성운, 이민정, 허철병, 고민규, 김상균, 하성해, 정보은 외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2,000원(두 작품 관람 시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문 의 동서씨어터(019-523-8702)



### 골목길 햄릿

7월 11일(금)-2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2008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초청작으로 선정된 극단 골목길의 '햄릿'.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위대한 캐츠비'의 연출가 박근형이 원전에 충실한 가장 햄릿다운 햄릿을 선보인다.

· 작/세익스피어 · 번역/정진수  
· 각색, 연출/박근형  
관람료 균일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행사

### 2008 동물아카데미

6월 20일(금)-8월 31일(일) 평일 오전 11:30, 오후 2:00, 4:30, 주말·공휴일 오후 12:00, 2:00, 4: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일반 15,000원·초등학생 이하 13,000원  
문 의 대한민국 동물학교(740-3533)

### 7월 지하철 문화행사

7월 5일(토), 16일(수)-19일(토), 30일(수)-31일(목) 부산지역 지하철역내  
■ 사상 프린지 공연  
· 5일 오후 5:00 사상역  
■ 국제매직페스티벌 지하철 게릴라 공연  
· 16일 오후 6:00 서면역  
· 17일 오후 6:00 연산동역  
· 18일 오후 6:00 경성대 부경대역  
· 19일 오후 6:00 남포동역  
■ 지하철에서 미리보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 30일-31일 오후 3:00 연산동역  
관람료 무료  
문 의 부산교통공사(640-7009)



### 2008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바다·춤

7월 8일 화요일 오후 5:00, 8:00 해운대백사장 야외특설무대  
시원한 여름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2008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야외춤판 '바다·춤'.  
■ 오후 5:00  
기쁨도 슬픔도 넘치지 않고(안무/윤덕경), 리듬 속으로

(안무/한은주), And then Silence(안무/Akelkina Marina), 안(안무/정귀인), 일(日), 출(出)(안무/최은희)  
■ 오후 8:00  
The Game(안무/신정희), After Agnes(안무/Juliette Mapp), Catch Me(안무/마쓰야마 요시히로), 태양아래(안무/황문숙), Concertante(총연출/김공수, 안무/허인정), 금빛 바다(안무/강미리)  
관람료 무료  
문 의 경성대학교(620-4964)

### 제 74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7월 9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관람료 무료  
문 의 김예강(019-516-1867)

### 2008 볼쇼이 아이스쇼

7월 24일(목)-7월 27일(일) 평일 오후 4:00, 8:00, 주말 오후 3:00, 6:3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동계 올림픽 및 세계대회를 휩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고난도 테크닉과 러시아 정통 발레의 우아함을 조화를 이룬 2008 볼쇼이 아이스쇼.  
관람료 R석 66,000원·S석 55,000원  
A석 33,000원  
문 의 (주)편앤쇼엔터테인먼트(1544-3396)

## 전시



### 부산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티파니 보석전

6월 27일(금)-8월 31일(일) 부산박물관  
세계 최고의 보석 세팅기술로 잘 알려진 티파니사의 170년 보석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티파니 보석전' 부산전시.  
· 관람시간/오전 9:00-오후 6:00(월요일 휴관)  
관람료 일반 12,000원·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문 의 PR GATE(02-792-2633)

### 茶畫·茶詩·茶具展

7월 1일(화)-7월 14일(월) 타워갤러리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 현대 도자·목공예展 -자연을 담은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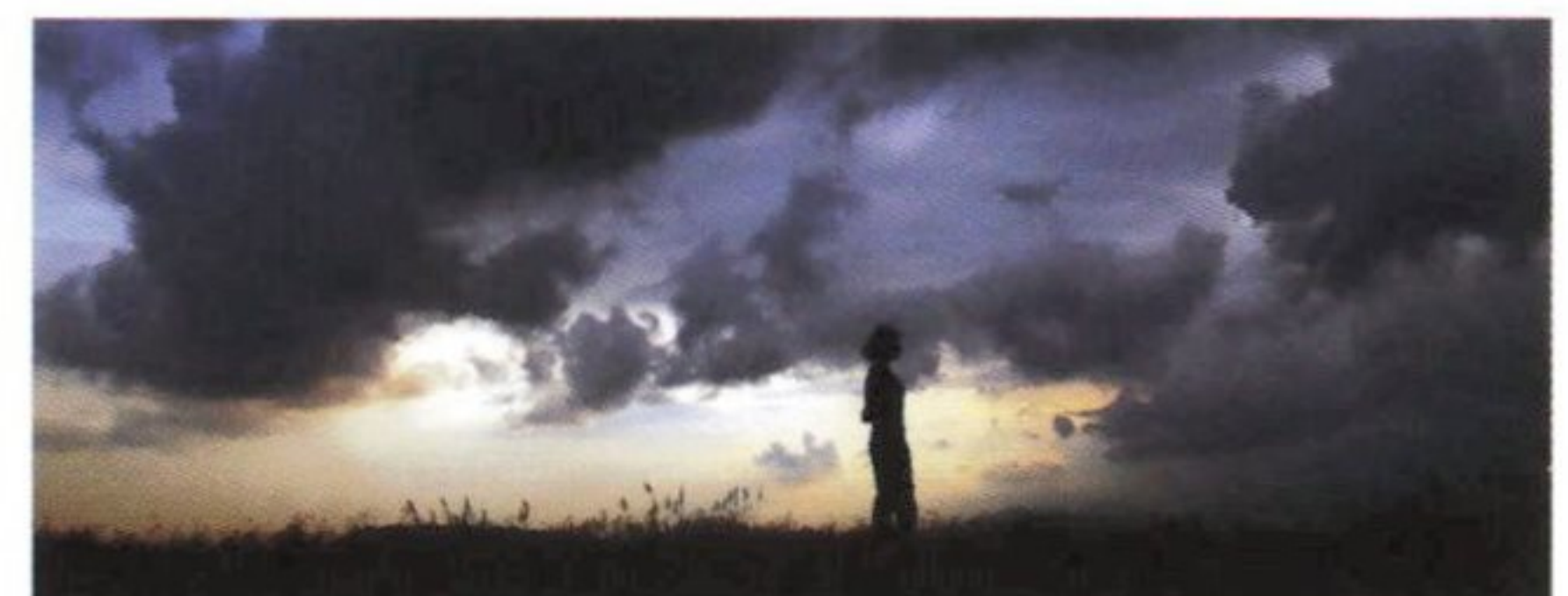
7월 1일(화)-7월 15일(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트갤러리  
문 의 가양갤러리(747-0372)

### 이덕진 개인전

7월 1일(화)-7월 6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제 27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순회전

7월 8일(화)-7월 11일(금) 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문 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631-4111)



### CAPA 38기 사진전

7월 8일(화)-7월 13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사계의 풍경전 제 1부

7월 15일(화)-7월 23일(수) 타워갤러리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 효원사우회 사진전

7월 15일(화)-7월 20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김이랑 개인전

7월 22일(화)-7월 27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고음악 연주의 기수들 5

곽 근 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 파비오 비온디 (Fabio Biondi,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



파비오 비온디는 이탈리아, 시실리의 팔레르모에서 태어났다. 11살에 바이올린

을 시작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12세에 이탈리아 국영방송 오케스트라와 첫 협연 무대를 가지면서 공식적으로 데뷔했다. 15세 때부터 시히스발트 카이켄과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의 영향으로 고음악과 원전악기 연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의 음악적인 비전을 이 분야에서 개척하게 된다. 16세 때, 빈에서 가장 중요한 실내악 무대인 빈 무지크페라인(Musikverein Wien)의 초청으로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했고 이후 카펠라 리얼, 무지카 안티쿠아 빈, 라 카펠라 로열, 레 무지시옹 뒤 루브르, 세미나리오 무지칼레 등의 무대에 서고 거장 조르디 사발이 이끄는 르 콩세르 드 나시옹과 함께 연주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의 솔로를 맡는 등 눈부신 활약을 했다.

1990년, 바로크 앙상블 <에우로파 갈란테>를 창단했고, 뛰어난 레코딩과 연주로 괄목한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과 라 스칼라,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도쿄의 산토리 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홀, 로열 앨버트 홀, 무지크페라인 빈, 링컨 센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수많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고 있다. 파비오 비온디와 에우로파 갈란테의 이탈리아 바로크 음반들은 클래식 음반으로는 드물게 100만장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6개의 디아빠종 상을 비롯한 많은 음반상을 받았다.

1992년, 맨체스터 음악장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비발디의 필사본을 토대로 한 '사계'를 발표하며 사계의 연주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충격을 몰고 왔다. 다른 연주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암스테르담 출판본에 비해 비발디 필사본은 당시 그의 실험 정신과 자유로움이 거침없이 표현되어 있다. 비온디와 에우로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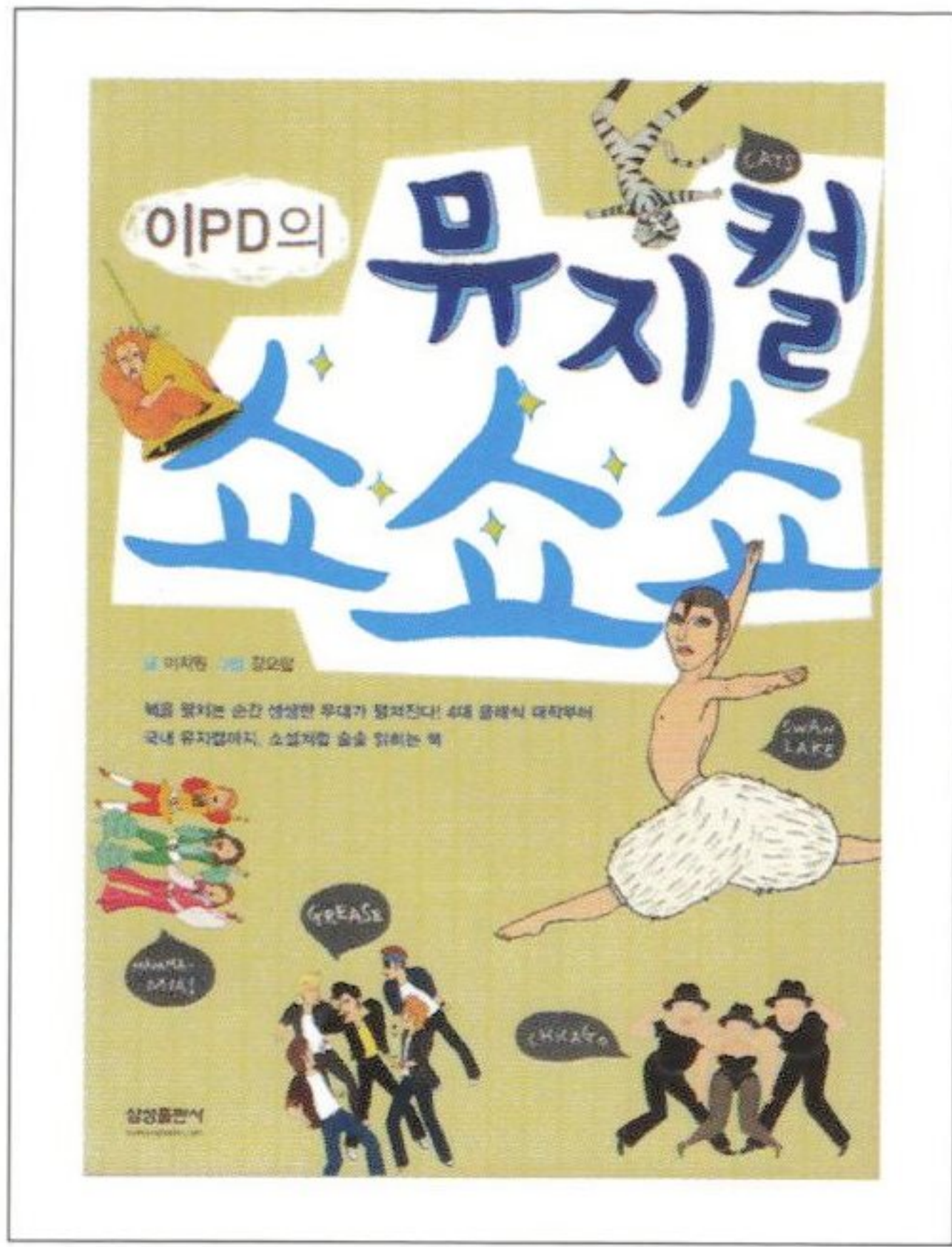
갈란테는 록음악을 연상시키는 가공할 속도감과 파워를 내세워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비온디는 "이것이 바로 가장 비발디에 가까운 음악이며, 내가 해석한 사계의 핵심이다"라고 정의했다. 특히, 정열적이고 무섭게 질주하는 '겨울'의 제1악장은 그들 음악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2악장의 아름다운 서정성은 다이네미즘이 빚어내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비발디의 협주곡 RV281, 133을 연주한 <황금가면> 앨범이 발매되었던 1995년 당시 팝 음반들을 누르고 프랑스 차트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비발디의 맨체스터 소나타와 바흐의 바이올린과 첼발로를 위한 소나타는 물론 심지어 프로코피에프와 슈만, 말리피에로, 슈베르트, 모차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균형 감각을 선보인 연주에서 그의 카리스마를 느끼게 된다.

인기 레퍼토리뿐 아니라 마이너 작곡가들의 음악을 재발견하는 비온디의 음악적 성장은 3세기의 음악을 커버한다. 이는 다양한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도 드러나는데, 비발디의 사계, 코렐리의 콘체르토 그로소, 오라토리오,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세레나타, 오페라, 헨델의 오페라, 18세기 이탈리아 바이올린 레퍼토리(베라치니, 비발디, 로카텔리, 타르티니)와 바흐, 슈베르트, 슈만의 소나타를 포함한다. 비온디는 교조주의를 벗어나 자유로운 스타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원래의 음악적 언어를 찾는데 노력한다. 이는 산타 체칠리아, 로테르담 체임버, 유리피안 바로크 오케스트라, 할레 오페라, 취리히 체임버, 말러 체임버 등과의 협연(지휘, 솔로)을 통해서 얻게 된 비온디만의 접근이다. 2005년, Stavanger Symphony Orchestra의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

출처 / 비온디의 공식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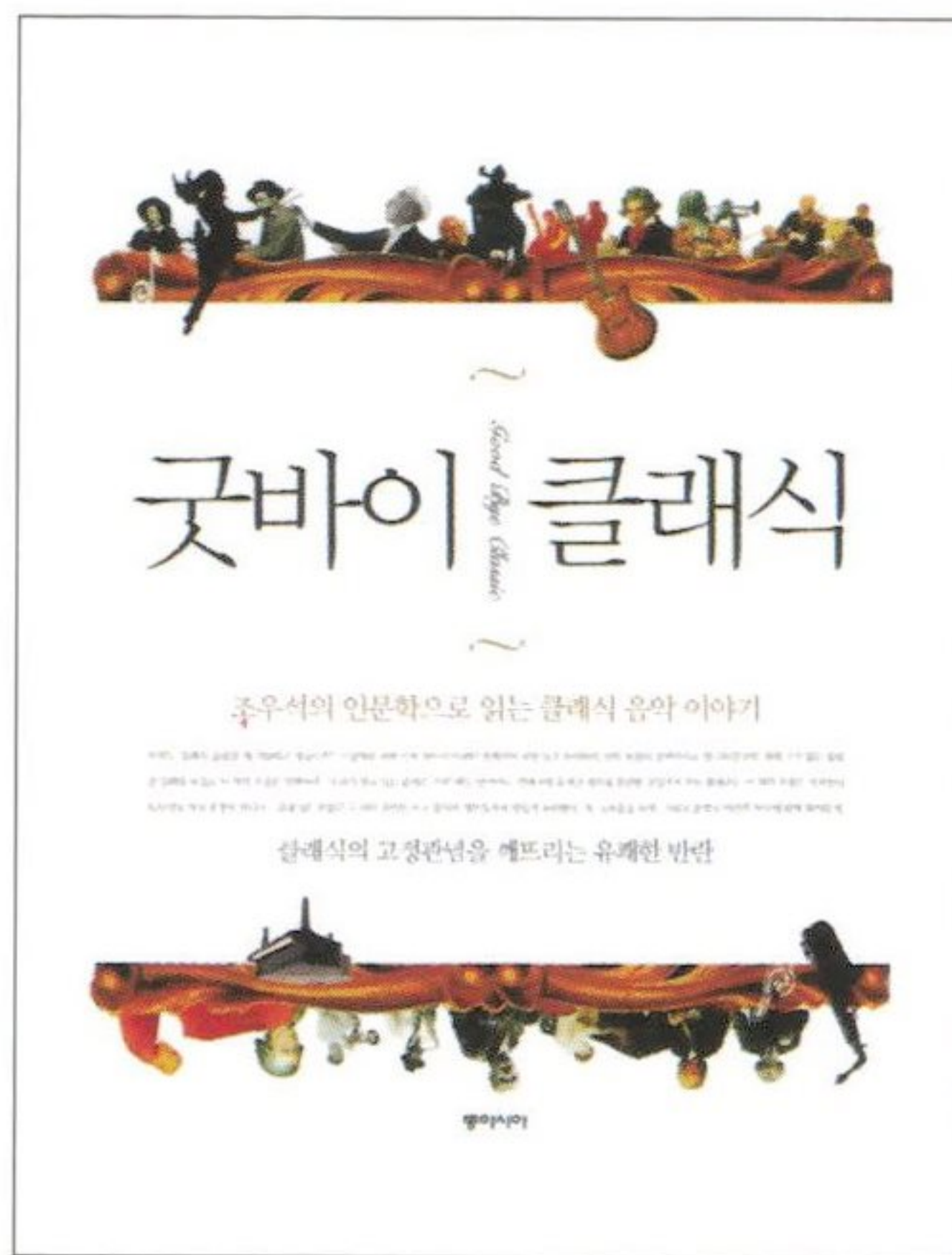
'쉽게 듣는 클래식'은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곽근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PD의 뮤지컬 쇼쇼쇼

• 이지원 글, 강모림 그림 • 삼성출판사  
• 373p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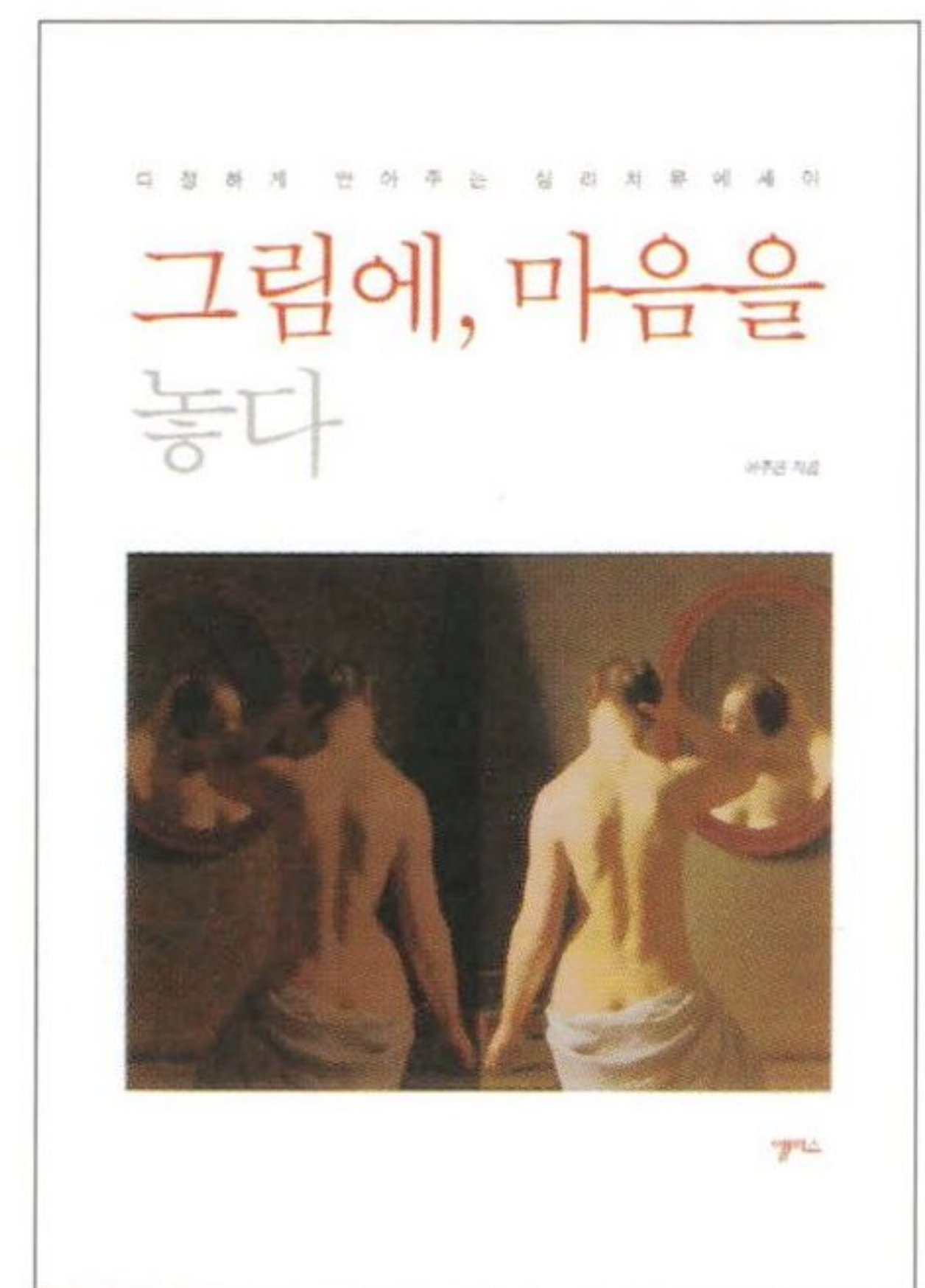
〈이흥렬 쇼〉, 〈결정 맛대맛〉, 〈유재석의 진실게임〉, 〈신동엽 이효리의 체인지〉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해 온 SBS 예능국 이지원PD. 그는 뮤지컬 마니아로서 개인생활을 즐기며 국내·외를 넘나들며 수백 편의 작품을 섭렵해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관련 저서들을 출간해 온 저자가 감명 깊게 본 국내외 뮤지컬 30편을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재미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걸 꼽으라면 나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뮤지컬이라고 말하겠다”고 하는 저자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라 글 속에 현장감이 넘친다. ‘세계가 열광한 클래식 대작’ 〈에비타〉 외 6편, ‘이보다 더 신날 순 없다’ 〈빌리 엘리어트〉 외 6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돈 주앙〉 외 6편, ‘무대 뒤 삶의 진실’ 〈헤드윅〉 외 6편, ‘상상 그 이상의 상상’ 〈메리 포핀즈〉 외 6편 등 모두 30편을 소개한다. 기본적인 뮤지컬의 줄거리와 배경 소개는 물론 저자가 느낀 뮤지컬 감상기와 독자들을 위한 감상 포인트, 화려한 무대, 공연 포스터, 유명 배우들의 사진 자료와 흥미로운 무대 뒷이야기를 실어 뮤지컬의 매력과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굿바이 클래식

• 조우석 지음 • 동아시아  
• 312p • 15,000원

클래식은 명품이고, 다른 음악은 수준이 낮은 것일까. 클래식은 구한말 기독교 찬송가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고, 서구 근대 문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조했다. 모든 분야에서 야만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되며 우리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 권력으로 서구의 것이 세워졌던 시절 클래식도 그러했다.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역사와 시대를 넘어 군림하는 표준 음악으로 생각하겠지만, 클래식 또한 본디 17·18세기 당대의 유행가에 불과했다. 수많은 전기와 영화들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불현듯 영감을 받아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악보를 순식간에 쏟아 그려내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그들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악보를 그려냈고,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악보를 신성시하는 것처럼 악보를 소중히 간직하지도 않았다. 근대 서구 음악인 클래식 말고 세상에 연주자보다 악보를 더 우선시하는 음악은 없다. 음악은 악보가 아닌 연주자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 100~200년 전에 근대 서구 땅에서 유행했던 음악일 뿐이고 동서고금의 무수한 종족 음악의 하나라는 서구 학계의 최신 주장과 조우석 씨의 의견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클래식의 세계이다.



## 그림에, 마음을 놓다

• 이주은 지음 • 앨리스  
• 201p • 12,800원

옷을 벗고, 긴 머리를 등위로 어지럽게 늘어뜨리고, 무릎 위에 엎은 두 판에 얼굴을 묻은 여자를 그린 고흐의 그림 제목은 〈슬픔〉이다. 이 그림의 모델이 되어 준 여인은 낮에는 재봉 일을, 밤에는 매춘을 하며 살고 있었다. 고흐를 만났을 때는 미혼모인데다가 고질적 성병에 걸려 있었고, 임신한 채 버려진 최악의 상태였다. 그런 그녀를 모른 채 내버려두고 떠날 수 없었던 고흐는 그녀를 그렸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어느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생의 바닥에 주저앉은 인간의 좌절을 보았다고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감정을 그려야 한다고 믿는 고흐는 그녀를 본 순간 ‘슬픔’이라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 그림을 보는 우리는 어떨까. 내 마음이 평온할 때는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나, 슬픈 감정이 온 마음을 짓누를 때 이 그림을 본다면 눈물이 흐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눈물을 닦지 말고 흐르는 채로 두고, 무거운 마음까지도 그림에 내려놓아버리라고 말해주는 책, 그림을 통한 심리치유에세이를 읽어보자. 백 마디 말보다 따뜻한 그림 한 폭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줄 것이다.

NEWS

## 예술에의 초대 통권 200호 발행 기념 음악회 개최

7월 15일(금) 시인 김상훈, 강은교, 테너 박인수,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등 출연



1992년 1월호로 부산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인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통권 200호를 맞아 오는 7월 15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과 시민들을 위해 200호 발행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1992년 창간 당시 32페이지, 총 3,000부를 발행했던 '예술에의 초대'는 그동안 52페이지~80페이지에 부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연 정보를 담아 왔다. 올해 3월호부터는 판형이 커지면서 독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창간호부터 199호 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패넬 전시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김

상훈, 강은교시인을 비롯해 테너 박인수,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퓨전 국악그룹 희나래,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 필 앙상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출연, 시와 음악과 영상이 있는 아름다운 무대를 열어줄 예정이다.

### '예술에의 초대' 지난 주요기획

우리의 얼을 찾아서(1994년), 부산을 살다간 문인(1996년), 국악과 친해집시다(1997년), 부산미술 50년(1998년), 탁계석의 오페라 산책(2000년), 세계문화예술기행(2000년), 최영철의 문화읽기(2001년), 주경업의 민속기행(2002년), 책속의 미술관(2003년),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2004년),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2005년), 김형술의 그림에세이(2006년) 등

NEWS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64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1. 연주회 일시 : 2008. 9. 19 (금) 오후 7:30

2. 모집 개요

가. 응시자격 : 원서접수시 부산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인제대 포함)에 재학중인 자

※ 단, 2005년 4월(제5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나. 모집부문 : 피아노, 현·관·타악기(협주 가능한 악기)

다. 모집인원 : 부문에 관계없이 6~8명(초·중 3~4명/고·대 3~4명)

3.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8. 7. 9(수)~7. 16(수) 10:00~17:00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향 사무실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사진 2매(3×4cm 동일사진, 원서부착용)

※ 응시원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4. 전형 개요

가. 전형일시 : 2008. 7. 18(금) 10:00~18:00 (초·중 10:00~/고·대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나. 전형과목 : 협주곡 단악장 (자유곡/단, 교향악단과 협연이 가능한 곡목) 전 파트 반주자 대동

5. 합격자 발표 : 2008. 7. 22(화) 10:00 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 (T. 607-6101~4)



NEWS

## 부산시립무용단 여름 무용교실 강습

### - '제 30기 시민무용교실', '제 19기 어린이한국춤교실' -

- 강습기간 : 2008.7.28(월) ~ 8.1(금)(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접수기간 : 2008. 7.7(월) ~ 7.16(수) (8일간) (평일 9:00-18:00 토,일은 휴무) ※ 선착순 마감
- ※ 전화접수 : 무용단 사무실 (607-6118, 6120, 6123)

#### 제30기 시민무용교실

- 강습내용 : 도살풀이춤(13:00~15:00)  
민요허튼춤(15:00~17:00)
- 강 사 : 도살풀이춤-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김진영(부수석 단원)  
민요허튼춤-이윤희(훈련지도자)  
서현미(단원)
- 대 상 : 일반 시민 및 교사 (각 반 30명)
- 준 비 물 : 도살풀이춤 - 도살풀이 수건
- 수 강 료 : 20,000원

#### 제19기 어린이 한국춤 교실

- 강습내용 : 가면놀이춤(10:00~11:00)  
청사초롱춤(11:00~12:00)
- 강 사 : 가면놀이춤- 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김진영(부수석 단원)  
청사초롱춤- 이윤희(훈련지도자)  
서현미(단원)
- 대 상 : 초등학생 어린이 (각 반 30명)
- 준 비 물 : 가면놀이춤 - 종이가면(모든 가면 종류)
- 수 강 료 : 10,000원

NEWS

## 부산시립극단 제 9기 여름 연극교실

- 강습기간 : 2008. 7.28(월) ~ 8.2(토)
- 강습장소 : 시립극단 연습실
- 강습내용 : 화술, 상황연기, 즉흥연기, 작품분석, 신체훈련, 장면연기 등
- 강 사 :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및 단원
- 대 상 : 중·고·대학생, 일반인 선착순 40명
- 수 강 료 : 20,000원 (교재 포함)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 2008. 7. 14(월) ~ 7. 24(목) 9일간(토, 일, 공휴일제외. 근무시간 중 접수)
-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41), 부산시립극단(607-6136~6138)

## 낙동강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다

여행은 재미있는 보물찾기이다. 어떤 곳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여행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보물들일 것이다.

6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들이 떠난 곳은 매실로 유명한 원동.

오전 9시,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 정기회원 가족 42명이 낙동강을 따라 초여름 여행길에 올랐다. 6월 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입단원 조은경, 김지영, 김소현이 동행했다. 공연장을 벗어나 정기회원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여서 단원들도 여행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표정.

원동은 사계절이 다른 모습이다. 봄은 곱고 탐스러운 매화로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에 봄기운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여름에는 상큼한 '매실'로 사람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준다.

원동의 매화는 낙동강 물길과 KTX 열차가 질주하는 경부선 철길을 끼고 있는 삼정지 마을 순매원의 풍광이 가장 인상적이다.

부산문화회관을 출발, 한 시간 남짓 달려 원동 순매원에 도착했다. 순매원은 매년 3월 중순 매화꽃이 필 무렵 매화축제를 열고 있다. 순매원의 인심좋은 주인 김용구 씨는 원동을 알리기 위해 매화축제를 열고 순매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이곳에서 재배한 매실 장아찌, 무우말랭이 등 순매원에서 직접 재배한 반찬으로 상춘객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전한다.

한창 매실 따기로 바쁜 시기지만 부산에서 찾아온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을 즐겁게 맞아주셨다. 6월 6일부터 3일간 순매원의 주요행사인 매실 따기 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족들을 위해 매실나무를 남겨 두셨다 한다. 연두빛 고운 매실과 김용구 사장님의 마음이 전해진 6월 여행은 몸과 마음

이 즐거운 하루였다.

열심히 매실을 따고 줍는 동안 시원한 매실나무 그늘에서 여유로운 오전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매실망에 가득 매실을 채우고 11시, 드디어 국악관현악단 단원들과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우리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드라마 이산과 황진이 OST와 흥겨운 우리 민요연곡, 팝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연주자들이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무대를 열어주었다. 철길 옆이라 연주에 앞서 걱정이 많았지만 열차는 고맙게도 연주를 피해 달려 주었다.

가야금과 해금, 소금, 대금 등 우리 악기를 가깝게 본 것도 신기했지만 열악한 무대에서 환상적인 음악을 들려준 단원들에게 박수가 이어졌다. 고생한 연주자들을 위해 앵콜은 생략... 정기회원 가족들은 순매원의 매실로 만든 푸짐한 점심 대접을 받은 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로 향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철새도래지로서의 옛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비 73억 5천 만원, 시비 73억 5천만 원 총 1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075㎡(1,233평) 규모로 건립된 공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으로 교육·체험 및 전시 등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6월 12일로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를 둘러본 뒤 다대포 아미산 전망대와 명지 갯벌, 녹산 수문을 거치는 낙동강 탐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자연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 뿐이라는 해설사의 설명을 되새기며 몸과 마음이 행복했던 6월의 특별한 하루가 저물었다.



※ 8월은 **청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테마여행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7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가입자

강희복(사상구 학장동)  
고미애(해운대구 반여 4동)  
김정학(사상구 모라 3동)  
정일순(사상구 주례2동)  
박미정(연제구 연산 5동)  
변미정(남구 용호 1동)  
이경은(남구 용호 1동)  
김복래(연제구 거제3동)  
이수자(부산진구 당감 3동)  
이영일(중구 영주동)

### 엽서 당첨자

류지호(서구 암남동)  
박명자(수영구 망미 1동)  
성정우(연제구 연산 5동)  
오유석(수영구 민락동)  
이선애(사상구 주례 2동)  
이선화(남구 대연 4동)  
이청자(연제구 연산4동)  
장지원(남구 용호 3동)  
정주식(사하구 하단동)  
전영희(사하구 괴정 3동)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 공연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국제신문 창간 61주년 기념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 지젤 Giselle



2008년 8월 23일~24일

토요일 오후 7:30/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최고의 낭만 발레  
동양인 최초 파리오페라 발레단 솔리스트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노 김용걸과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발레

- 작 곡 : 아돌프 아당
- 대 본 : 테오필 고테이르
- 안 무 : 장 코랄리와 질 페로
- 예술감독 : 최태지
- 출 연 : 국립발레단 & 수석 발레리노 김용걸
- 초 연 : 1841년 파리 오페라발레단에 의해 초연
- 구 성 : 2막
- 상영시간 : 총 2시간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솔오페라단 공동제작 오페라



Giuseppe Verdi OPERA

## AIDA

2008년 9월 3일~7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이제껏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성악가들로 구성된  
화려한 캐스팅!!!

이집트의 무장 라다메스(Radames)와 포로인 이디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와의 슬픈 사랑을 다룬 오페라

라 스칼라와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연출가로 활약 중인  
파올로 바이오키 유럽 오페라의 젊은 거장 오타비오 마리노  
와 연출의 마법사 안토니오 루치아, 금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 피에로 줄리아치가 펼치는 아름다운 대 서사시!  
그 화려한 막이 시작된다.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30,000원 ·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 B석 50,000원 · C석 30,000원

■ 문의 부산문화회관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ulture.busan.kr

달콤한 추억의 주크박스 뮤지컬

# 달고나

2008년 10월 18일~19일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달콤한 추억의 7080주크박스 뮤지컬  
 추억의 가요들이 가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뮤지컬.  
 서양에 <맘미아>가 있다면 한국에는 <달고나>가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가요가 공연 무대 위에서 세우,  
 지희의 이야기와 함께 녹아들 때, 관객들은 노래에 취해,  
 이야기에 취해 젊은 날의 꿈과 사랑, 삶을 나누어온 인연들,  
 함께 숨쉬었던 공기와 시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신나는 뮤지컬.

**뮤지컬 넘버로 보는 달고나**  
 나의 작은 꿈, 은하철도 999, 담배가게 아가씨, 꽃과 어린왕자,  
 너나 좋아해, 불티, 여행을 떠나요, 행복을 주는 사람 등



## 부산 명예시민 조수미 초청공연

2008년 12월 7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12월의 세레나데

1993년 이탈리아에서 당해 최고의 소프라노에게 주는 황금기러기상 (La Siola d'Oro)을 비롯하여, 대한민국문화훈장(1995년), 해외동포상 (1997년), 프랑스 문화계 비평가들이 선정한 Grand Palmier상(프랑스, 1997년)을 수상. 1993년에 게오르그 솔티경의 지휘로 데카(Decca)에서 발매된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 그레미상 클래식 부문의 오페라 부문 최고 음반으로 선정.

- 명 지휘자 카라얀은 "100년에 한두 명 나올까 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주빈 메타 "신이 주신 목소리" 라는 극찬
- 세계 5대 오페라극장을 섭렵하면서 게오르그 솔티, 주빈 메타, 알프레드 크라우스, 로린 마젤 등의 명 지휘자와 여러 오페라에 출연

## 100자 토크

### 한 달의 U콘서트

20번째로 찾은 유 콘서트! 내 복에 이런 행복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행복한 마음만으로 집을 나선다.

로즈~~ 한인 2세라는 팝페라가수! 한달 두달 다니다 보니 어느새 팝페라도 알게되고 오페라도 알게되고... 2시간의 행복이 한달을 행복하게 한다. someone like you love me someone like you love me... 넓은 극장의 울림이 나의 귓가에서 자꾸 재생된다.

안윤주(북구 만덕1동)

### 부산시립극단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죽은 영혼들의 대화로 시작되는 이 연극은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고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도 많이 들렸다.

중간중간 배우들의 능청스런 연기에 폭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단원들이 들려주는 웃음, 갈등, 슬픔, 감동이 잘 어우러진 좋은 공연이었다.

김선례(남구 대연1동)

###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발을 굴러 몸을 하늘로 내던질 때의 모습은 마치 분분한 낙화를 연상케한다.

우리의 몸이 나비보다 가볍고 흐르는 강물보다 더 역동적일 수 있음을 증명해준 공연.

주민주(해운대구 재송동)

### 뮤지컬 '김종욱 찾기'

나의 첫사랑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김종욱 때문에 잊고 지냈던, 한때 풋내기 사랑이었던 그 사람이 궁금해졌다.

3명의 배우가 보여준 무대는 짝찬 무대였고, 공연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끝났어?라는 말을 하며 연신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무대를 뒤로하고 돌아나오는 내 가슴한켠은 따뜻하기만 했다.

김한영(영도구 봉래동3가)

### 연극 '존경하는 열레나 선생님'

연극이 지닌 볼거리보다 더 많은 볼거리들이 연극밖에 널려 있는 세상 속에

최소한 볼거리를 좇지않는 가슴가득 파문을 남기는 통찰력있는 작품이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파생되는 세계관, 선과 악의 세계 등등... 긴 공연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음을~~~

황미애(동래구 명륜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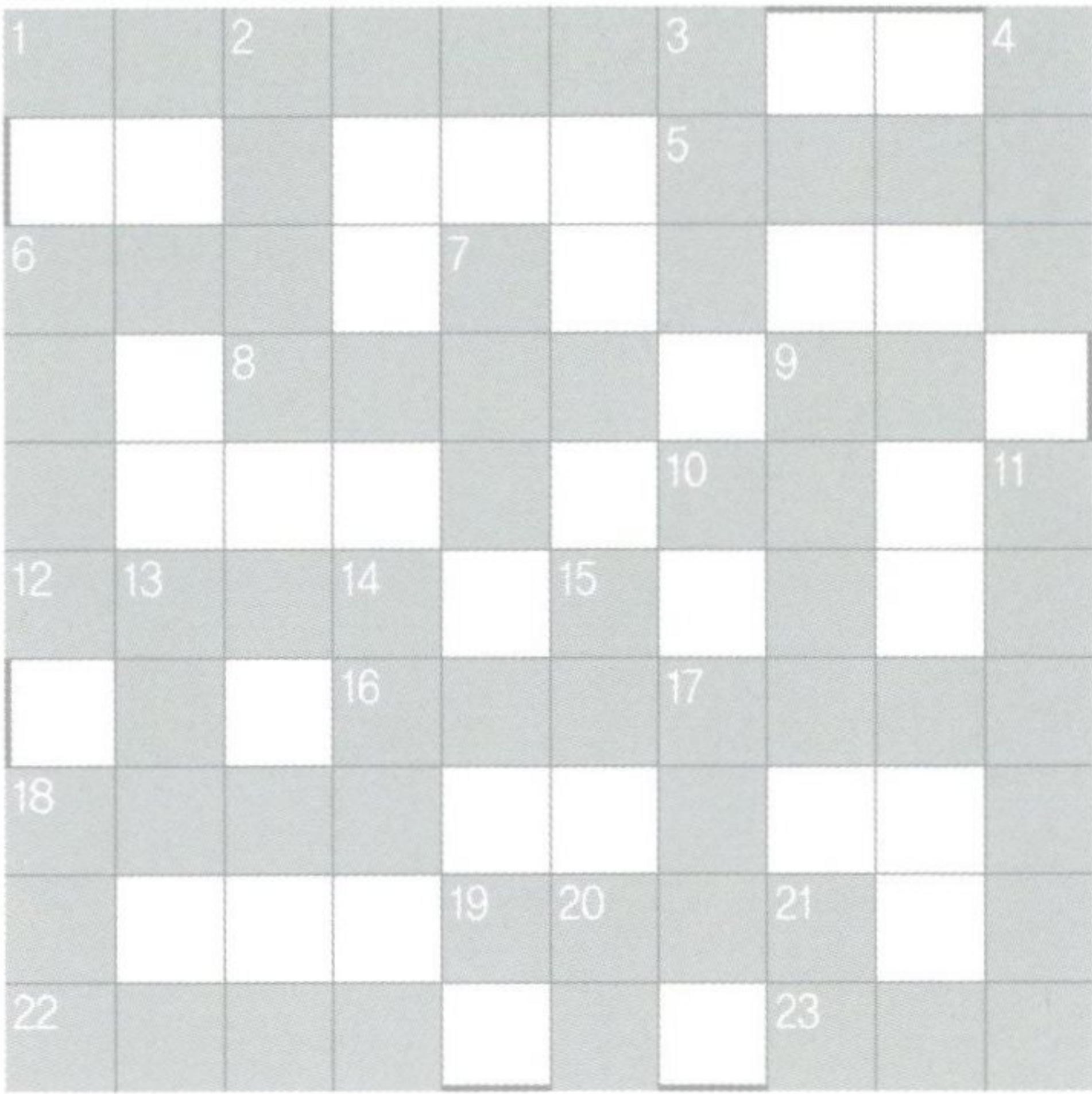
**방 법** [bsculture@naver.com](mailto: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놀부집 향아리갈비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가로

-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개혁군주 정조를 소재로 한 연출가 이운택의 대형역사뮤지컬로, 제 12회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 음악상, 제 1회 더뮤지컬어워즈 작품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화제작이다.
- 속세의 관습이나 규율 따위를 무시하고 방랑하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시인이나 예술가.
- 1979년 소설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로 데뷔한 후 그동안 상실의 시대, 태엽감은 새, 해변의 카프카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매니아층을 지닌 일본의 소설가.
- 하이든과 함께 18세기의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고전파의 양식을 확립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 음악의 천재.
-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 여러가지 출혈증과 황달 치료제, 이뇨제로 사용되며 주홍색 물감으로도 쓰인다.
  - 신문사가 중요한 뉴스를 속보로 전하기 위해 정기간행 외에 일시로 발행하는 인쇄물.
  - 한국과학기술원. 과학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고 기초 및 첨단 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
  - 1976년 김창기 감독의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등장한 세계 최초의 무술 로봇.
  - 독일의 문호 괴테가 전 생애를 바쳐서 쓴 희곡. 독일 전설을 바탕으로, 학문과 지식에 절망한 노학자가 악마의 꾀에 빠지지만 마침내 잘못을 깨달아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 한 없이 크고 넓은 바다.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고사성어.
  - 강화도 마니산 서쪽 봉우리에 있는 단.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 세로

- 북극, 캐나다, 그린란드 및 시베리아의 북극 지방에 사는 인종.
- 다보여래의 사리를 모신 경주 불국사의 탑. 국보 제 20호.
- 불교에서 승려들이 여름동안 한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일.

- 직사각형의 틀에 조그마한 칸을 여러 개 만들고, 칸마다 쇠붙이 서를 끼워 만든 작은 관악기. 입에 대고 숨을 불어 넣거나 빨아들여서 소리를 낸다.
- 집시여인과 기병(騎兵)인 돈 호세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오페라.
- 외국인이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관 등에 한해 일정 정도 허용되기도 한다.
- 러시아어로 '큰 발레단'이라는 뜻.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등의 작품을 공연하면서 세계적인 발레단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 영화 '괴물' '왕의 남자' 등 영화음악감독으로도 유명한 클래식기타리스트. 지난 6월 2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오랜만에 부산을 찾아 청중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하나. 정형화된 리듬에 일본 엔카(演歌)에서 들어온 음계를 사용하여 구성되고 애상적인 느낌을 준다.
-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화한 록뮤지컬.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뉴욕 이스트 빌리지를 배경으로 현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 영도구에 있는 명승지. 신라 태종 무열왕이 들렀다는 곳으로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유명하다. 부산기념물 제28호.
-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를링크가 지은 동화극으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 인도 북부가 원산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열대과일. 과육이 노란빛이다.
- 해 안. 해가 질때까지의 시간을 이르는 순 우리말.

## 지난호 정답

점	박	경	리	서	편	제
프	라	하	신	파	극	인
	사	밭				에
	스	달	신	드	롬	논
기	타	리		안	개	
	워		작	모	네	쑥
오	즈	의	마	법	사	의
딛		야	리	일	머	
세	한	도	하	맹	기	머
이	독	지	음			루

## 퍼즐 당첨자 명단

### ■ 큰집 식사권

- 김은주(중구 중앙동 4가)
- 문정리(중구 대청동 4가)
- 변현미(연제구 거제3동)
- 이봉주(양산시 북부동)
- 진해경(부산진구 초읍동)

### ■ 놀부집 향아리갈비

- 김백운(수영구 광안 3동)
- 반택만(남구 대연 4동)
- 오봉열(해운대구 우 1동)
- 이영숙(사하구 괴정 4동)
- 조종호(부산진구 전포 1동)

### ■ 가마골 소극장 초대권

- 권호경(부산진구 가야 2동)
- 김민주(사상구 주례2동)
- 윤우영(남구 우암 1동)
- 이혜리(연제구 연산 6동)
- 정복임(수영구 남천동)

###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 강난주(연제구 거제 3동)
- 김복래(연제구 거제 3동)
- 김현영(영도구 봉래동 3가)
- 윤용민(남구 대연 4동)
- 최임정(해운대구 반여 1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놀부집 향아리갈비 대연시티원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7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008 여름마당춤판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안무·구성 **홍기태**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 정 화 홍 련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어린이 보호와 가족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공연은  
유니세프를 후원합니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6120  
[www.koreanfolkdance.com](http://www.koreanfolkdance.com)

2008. 7. 17(목) - 18(금) 20:00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무료)**

(※ 우천시 문화회관 중극장 선착순 입장)



2006  
최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 미래를 아는 부산도시공사... 우리의 미래는 바로 고객 여러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 인재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BMC**가 되겠습니다.



**BMC**  
부산도시공사

**주요추진사업**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 장안산업단지 조성, 정관택지조성, 추모공원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주거환경개선(4개지구)

**BMC**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 (614-707) |  
| Tel. 051)808-2662 | Fax. 051)810-1400 | <http://www.bmc.busan.kr> |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 해외여행비 3%할인 받자!!



\* 특별할인 혜택은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적용됩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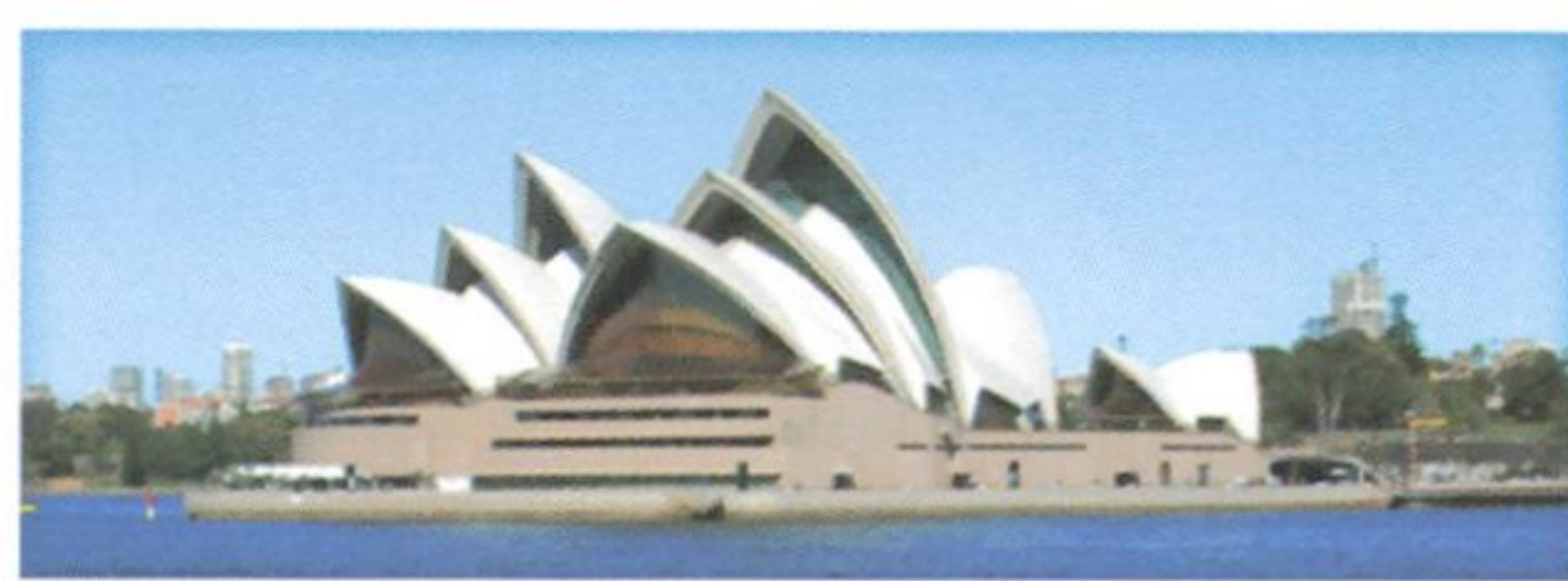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http://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 차별화된 가족여행

패밀리 앨범! 우리 가족만의 단독여행



3+ 우리 가족만의 단독여행  
**패밀리 앨범! 시드니 6일**  
PAP490 1,890,000원~



4+ 우리가족만의 단독여행  
**패밀리 앨범! 시드니와 멜버른 6일**  
PAP480 2,290,000원~



4+ 우리가족만의 단독여행  
**패밀리 앨범! 호주 BIG 8일**  
PAP482 2,790,000원~

## 추천! 유럽여행

알프스로 떠나는 색다른 계절여행



서유럽 핵심 5개국 (영/프/스/이/독)  
+ 융프라우 10일  
EWP751 3,990,000원~



[국내선 포함]  
백조의 성과 융프라우 5개국 12일  
EWP755 3,590,000원~



[강력추천] 로맨틱 가도와 몽블랑  
서유럽 5개국 11일  
EWP754 3,690,000원~

## 부산출발 미주여행

여유로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여행



[대한항공 연합]  
미서부/디즈니 8일 (5대옵선포함)  
HUP703 2,090,000원~



[유나이티드 항공]  
미서부/미동부 13일  
HUP705 2,590,000원~



[에어캐나다 항공]  
캐나다 항공 일주 8일  
HCP721 2,990,000원~

## 동남아 특가여행

미리 준비하는 여름휴가 추천특가여행



드라마 따라잡기  
대만/화련/아류/온천욕 4일  
ATP702 769,000원~



알찬 여름 휴가여행  
푸켓/피피섬 5일 - 즐리튜드 풀빌라  
ABP701 699,000원~



♣ 한정초특가 + 노마진 + 마감임박♣  
방콕/파타야 5일  
AAP701 649,000원~

# 부산시립교향악단

## 2009년 부산연주인시리즈 출연자 모집

**모집부문** 2009년 부산시향 정기·특별공연에 출연할 객원지휘자 및 협연자(성악, 피아노, 관현악, 타악, 작곡)  
※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자 격**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음악활동 및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인 또는 부산출신의 음악인(나이제한 없음)

**심사방법** 1차-서류 및 자격심사  
2차-자료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함  
▷ 지휘자 및 협연자 : 서류 및 자료심사  
▷ 작곡가 : 창작곡 심사  
창작곡은 공고일 현재 필히 미발표작일 것  
8분~12분 내외 관현악곡(3관 편성 이내)  
최종합격자는 연주 3개월 전까지 악보  
(지휘스코어 및 파트보)제출  
선정된 작품 공연 시, 소정의 작품 사용료 지급

**제출서류** ▷ 공통-이력서 또는 프로필 1부(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 1부  
콩쿠르 입상자는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휘 및 협연-연주실황 CD 또는 DVD(비디오) 1매  
→ 프로그램 첨부 要  
▷ 작곡-창작곡(지휘자용 스코어) 1부  
→ 데모 CD 첨부 要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기간** 지휘자 및 협연자-2008. 7. 21(월)~7. 31(목) 17:00 까지 도착분  
작곡가(창작곡)-2008. 9. 22(월)~9. 26(금) 17:00 까지 도착분

**제출장소**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

**대상자 발표** 심사 후 개별통지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 ☎607-6101~3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051-740-1700

2008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 8월 8일(금) 포도가 익어가는 마을 영천 포도수확체험 및 문화탐방

전국 최고의 포도 생산지인 영천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 탐스럽게 영근 영천의 명물 포도수확체험, 포도와 관련한 게임, 포도주 담기 행사를 통해 영천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함께 배워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영천 시청 도착, 포도 농가로 이동
- ▷ 10:30 포도수확 체험 및 포도 관련 게임
- ▷ 13:00 중식 후 포도주 담그기
- ▷ 15:00 영천 문화 탐방-거조암, 임고서원
- ▷ 17:30 부산출발



### ▶ 9월 5일(금) 충절의 고장 진주, 경남 수목원 여행

진주성대첩의 영웅 김시민 장군과 왜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의 구국혼이 서려있는 충절의 고장 진주로 떠나는 9월 여행.

-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진주 도착
- ▷ 10:30 진주성, 진주국립박물관, 축석루 탐방
- ▷ 12:30 중식 후 경남 수목원으로 출발
- ▷ 14:00 경남 수목원 도착 후 관람(민속식물원-산림박물관-열대식물원-화목원 등)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골목길 햄릿

10% 할인



▶ 날짜 : 2008. 7. 11(금)~7. 20(일)

▶ 시간 :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 작/세익스피어 · 각색, 연출/박근형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08. 7. 1(화)~9. 30(화)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10% 할인

· 날짜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 시간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대학과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BUSAN 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BUSANCONSERVATORY Art Hall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사무실 TEL. 051-501-3999  
FAX. 051-505-3999  
홈페이지. www.bscon.co.kr

##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8월 테마여행 응모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회원번호  
(※마이비카드는 마이비숫자 10자리를 적어주십시오.)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엽서는 7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이번호에서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 부산문화회관 교통편

- 버 스 : 51, 68, 134
-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셔틀버스 운행〉

- 출 발 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 출발시간 : 월~ 금요일 오후 7시(무료)  
※ 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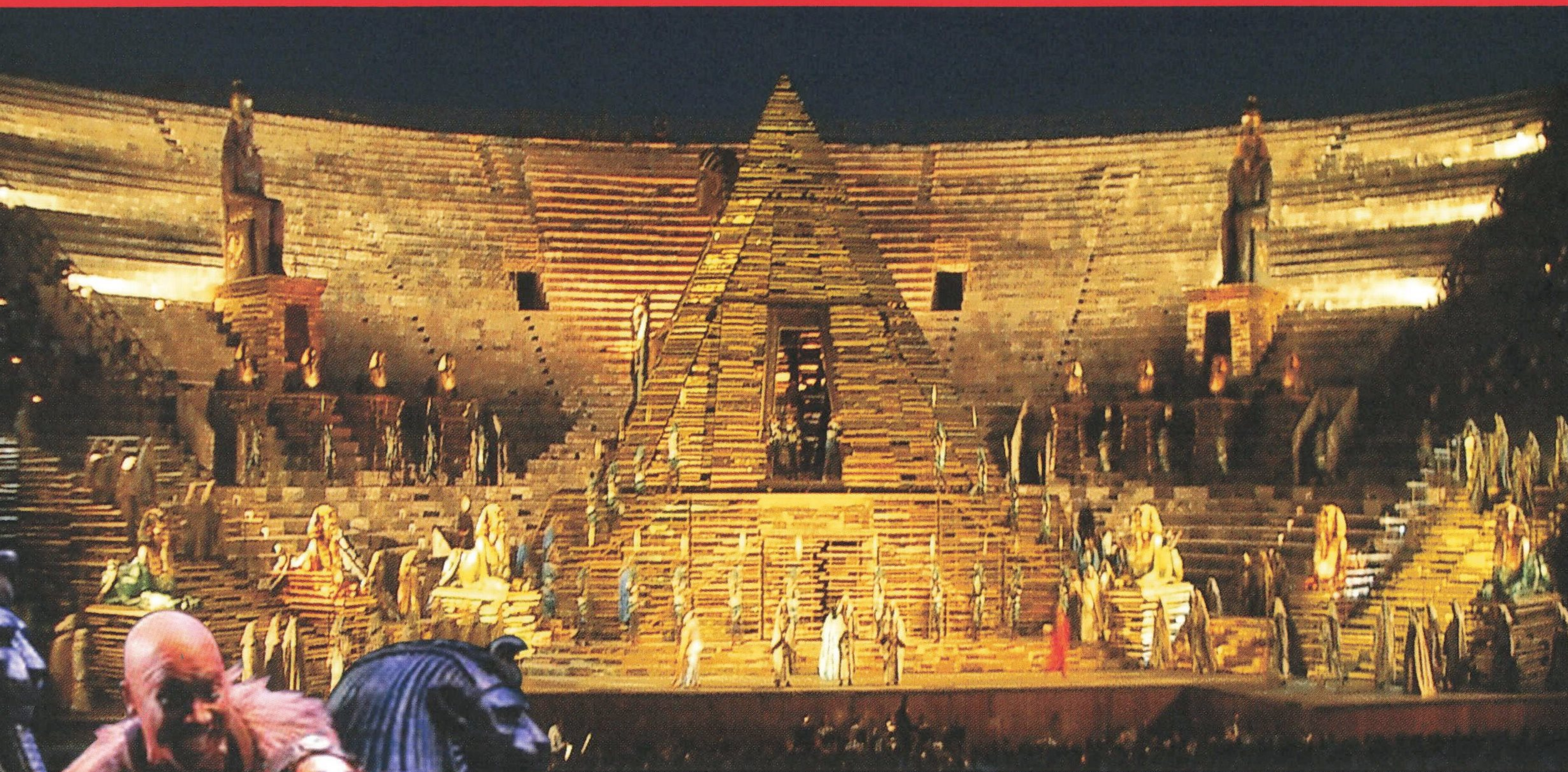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Giuseppe Verdi OPERA

# AIDA

- >> 예술총감독 / 이 소 영
- >> 예 술 고 문 / Paolo Baiocco
- >> 지        회 / Ottavio Marino
- >> 연        출 / Carlo Antonio de Lucia
- >> 아 이 다 / Roxana Briban, Irina krikunova, 배 수 진
- >> 라 다 메 스 / Piero Giuliacci, 이 정 원, 김 지 호
- >> 암 네 리 스 / Katja Lytting, Larissa Demidova, 박 소 연
- >> 아모나스로 / 고성현, 박대용, 김종화
- >> 람 피 스 / Andras Palerdi, 안균형, 김태경
- >>        레        / 김요한, 문동환, 김정대
- >> 무 녀 장 / 옥혜나, 강연희, 한송이, 윤지영
- >> 전        령 / 이정환, 김정권

2008. 9. 3(수) ~ 7(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 MBC 부산일보사

협찬 | KOMACO HiBi ORANGE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해피랜드 Levi's® kids

공연안내 및 예매 | 1544-9373 솔오페라단 (051) 740-5750 | 공연안내 | 부산문화회관 (051) 625-8130

예 매 처 |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390 ▶옥션티켓 1566-1369 ▶부산은행 전지점

입 장 권 | ▶VIP석 150,000 ▶R석 130,000 ▶S석 100,000 ▶A석 80,000 ▶B석 50,000 ▶C석 30,000

# 지젤 Giselle

고귀한 사랑  
로맨틱 발레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낭만 발레의 대표작 '지젤'  
클래식 발레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 공연



발레리나 김주원

2008. 8. 23(토) 오후 7:30 / 24(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 관 부산문화회관 예술기획  
문 의 부산문화회관(051-625-8130)  
국제신문(051-500-5222)

티켓예약 예술기획(0505-700-9798)  
ticketlink 1588-7890  
입 장 료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